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break의 의미 유형과 목적어 연어에
따른 한국어 대응표현 연구



2020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희 란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break의 의미 유형과 목적어 연어에
따른 한국어 대응표현 연구

지도교수 김은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희 란

정희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21일

위원장 응용언어학 박사 오 준 일 (인)

위 원 언 어 학 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 어 학 박사 김 소 영 (인)

위 원 언 어 학 박사 이 온 순 (인)

위 원 언 어 학 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구성	6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론	9
2.1 이론적 배경	9
2.1.1 언어와 코퍼스	9
2.1.2 다의어	11
2.1.2.1 다의어의 연구 방법	12
2.1.2.2 다의어의 의미 확장	17
2.2 연구 방법론	23
2.2.1 인지 의미론적 접근	23
2.2.2 어휘 유형론적 접근	27
2.2.2.1 공어휘화와 의미지도	28
2.2.2.2 break의 의의와 어휘 의미지도	33
III. break의 의미 지도 및 의미 유형	39
3.1 break의 의미 범주 및 의미 지도	39
3.1.1 break의 의미 범주	40

3.1.2 break의 의미 지도	45
3.2 break의 의미 유형	50
3.2.1 ‘파괴’의 의미 유형	50
3.2.1.1 disintegrate	50
3.2.1.2 discard	58
3.2.2 ‘중지’의 의미 유형	59
3.2.2.1 disconnect	60
3.2.2.2 stop	60
3.2.3 ‘어김’의 의미 유형	63
3.2.3.1 violate	63
3.2.3.2 disobey	64
IV. 목적어 연어에 따른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	66
4.1 ‘파괴’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	66
4.1.1 깨다	67
4.1.2 부수다	77
4.1.3 뚫다	79
4.1.4 타개하다	81
4.1.5 파기하다	83
4.1.6 터트리다	84
4.1.7 부러트리다	87
4.1.8 꺾다	89
4.1.9 쪼개다	90
4.1.10 뜯다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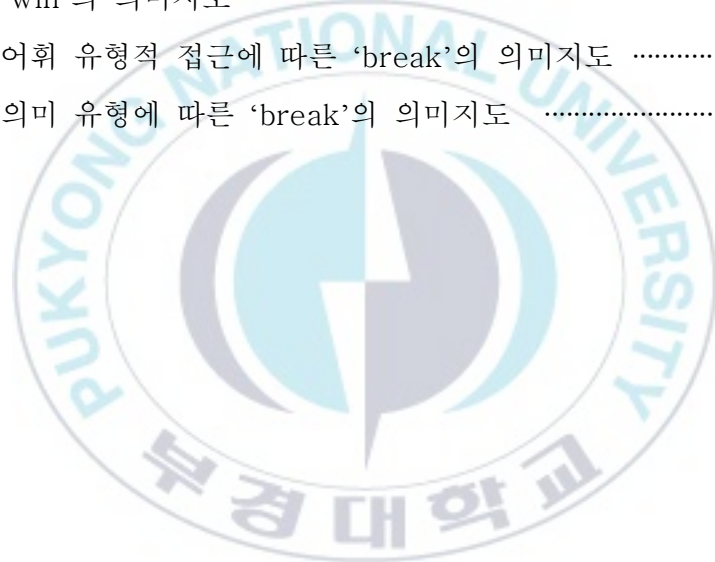
4.1.11 찢다	93
4.1.12 갈다	94
4.1.13 망가트리다	96
4.1.14 파산하다	97
4.1.15 벗어나다	98
4.1.16 기타 대응표현	100
4.2 ‘중지’의 한국어 대응 표현 양상	103
4.2.1 끊다	103
4.2.2 중단하다	105
4.3 ‘어김’의 한국어 대응 표현 양상	107
4.3.1 어기다	107
4.3.2 위반하다	108
V. 결론	111
참고문헌	115

표 목차

<표 1> 영어 ‘straight’와 불어 ‘droit’의 의의비교	30
<표 2> 동사 break의 의미 범주별 목적어 연어 수 및 빈도	40
<표 3> 한국어 대응표현 ‘깨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68
<표 4> 한국어 대응표현 ‘부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77
<표 5> 한국어 대응 표현 ‘뚫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80
<표 6> 한국어 대응표현 ‘타개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81
<표 7> 한국어 대응표현 ‘파기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83
<표 8> 한국어 대응표현 ‘터트리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85
<표 9> 한국어 대응표현 ‘부러트리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87
<표 10> 한국어 대응표현 ‘꺾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89
<표 11> 한국어 대응표현 ‘쪼개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1
<표 12> 한국어 대응표현 ‘뜯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2
<표 13> 한국어 대응표현 ‘찢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3
<표 14> 한국어 대응표현 ‘갈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4
<표 15> 한국어 대응표현 ‘망가트리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6
<표 16> 한국어 대응표현 ‘파산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7
<표 17> 한국어 대응표현 ‘벗어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98
<표 18> 한국어 대응표현 ‘끊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103
<표 19> 한국어 대응표현 ‘중단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106
<표 20> 한국어 대응표현 ‘어기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107
<표 21> 한국어 대응표현 ‘위반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109

그림 목차

<그림 1> run의 의미망모형	16
<그림 2> 참조점 과정	21
<그림 3> 타동사 break의 의미 과정	24
<그림 4>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Mwotlap어 동사 ol의 의의 연결	31
<그림 5> ‘win’의 의미지도	33
<그림 6> 어휘 유형적 접근에 따른 ‘break’의 의미지도	34
<그림 7> 의미 유형에 따른 ‘break’의 의미지도	45



A Study on Meaning Types of the Verb ‘Break’ and Its Korean
Corresponding Expressions Based on Objective Collocations

Hee Ran J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meaning types of the verb ‘break’ by analyzing the noun objective collocations by means of the COCA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program and to provide the pattern of its Korean corresponding expressions with variations depending on the noun objective collocations. This study also aims to help Korean EFL learners maximize their understanding of the polysemous verb ‘break’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foreign language skills.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classifies the verb meaning types by analyzing the noun objectives collocated with the verb ‘break’. This study also provides semantic maps based on the meaning types of the verb. Finally, the pattern of Korean corresponding expressions of the verb ‘break’ is investigated when it collocates with the noun objectives.

From the corpus research, the outcome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frequency of the meaning categorizations, ‘destroy’ shows the highest frequency and ‘discontinue’ is the second highest, followed

by 'breach'. Secondly, the verb 'break' has different kinds of meanings types according to the meaning categorizations, which are 'destroy', 'discontinue' and 'breach'. The detailed meaning types of the verbs are as follows: 'destroy' has two meaning types. One is 'disintegrate', which is also subdivided into 'fragment', 'separate' and 'burst', and the other is 'discard'. The other two meaning types are the same: 'discontinue' has 'disconnect' and 'stop' and 'breach' has 'violate' and 'disobey'.

In addition to the meaning typ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nglish verb 'break' translates into Korean when it collocates with objective nouns. When the verb 'break' is translated, it shows various Korean expression patterns and the expressions of the Korean counterparts differ according to the kinds of the objectives noun. For example, many Korean destructive verbs are used depending on the shapes and materials of the objects which are broken. Also,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related to the other meaning types for the verb 'break' and Korean has numerous counterparts for the verb 'break' which become clear with th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patterns.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알아야하는 많은 어휘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의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의 어휘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면 다의어 학습은 하나의 어휘를 가지고 여러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는 많은 다의어가 존재하고, 그러한 단어들의 다의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기본의미에서 의미 확장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할 때, 우선은 영어 동사에 대한 모국어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대응되는 표현이 하나라면 상관이 없지만, 번역되는 표현이 많아지면, 학습자들의 어휘학습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동사 break의 의미를 대해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거의 ‘깨다’나 ‘부수다’로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전¹⁾에 나온 영어 동사 ‘break’의 한국어 의미를 살펴보자.

1) 인터넷 네이버 영어사전의 동아출판 프라임 영한사전 (<https://endic.naver.com>)을 참고하여 나열하였다.

- ① 깨(뜨리)다, 부수다, 쪼개다, 찢다, 둘로 꺾다
예) break a window / break a twig
- ② 뼈를 부러뜨리다, 까지게 하다
예) break a bone / break one's neck
- ③ 고장내다, 부수다
예) The television is broken again.
- ④ 길을 열다, 트다, 땅을 처음으로 갈다
예) break a way (path)
- ⑤ 적을 쳐부수다
예) break a strike
- ⑥ 방해하다
예) break one's sleep / break silence
- ⑦ 계속되고 있는 것을 중단하거나 차단 하다
예) break an electric current / break one's journey
- ⑧ 한 벌로 된 것을 나누다, 쪼개다, 잔돈으로 바꾸다, 헐다
예) break a set / break a ten-dollar bill
- ⑨ 어기다, 위반하다
예) break one's promise
- ⑩ 기록을 깨다
예) break a record
- ⑪ 나쁜 버릇을 그만두다, 끊다, 고치다
예) He broke his child of that bad habit.
- ⑫ 속박을 박차고 나오다
예) break prison
- ⑬ 기력, 자부심 · 건강 등을 꺾다, 해치다
예) break a person's heart
- ⑭ 밝히다, 알리다, 누설하다
예) break bad news/a secret
- ⑮ 암호를 해독하다, 풀다, 사건, 문제를 해결하다
예) break a code

영어 동사 break의 의미에 대해 모두 15개로 분류하고²⁾ 각 각의 한국어

의미를 붙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나온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면, 비록 여러 가지 의미를 나열하고 있지만, 각 각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개별 의미 간의 관련성이 있으며, 비슷한 의미 범주가 나타난다. 동사 break의 의미적 연관성에 대해, 사전의 예시를 참고로 하여 설명해 보겠다. 다음은 앞에 제시된 사전에서, 예로 제시한 예문의 일부분이다.

(사전의 영어 예시)

- ①: break a window, break a twig , break a cup
- ②: break a bone, break one's neck
- ⑥: break one's sleep, break silence
- ⑦: break an electric current, break one's journey
- ⑧: break a set
- ⑨: break one's promise
- ⑩: break a record
- ⑬: break a person's heart
- ⑭: break bad news, break a secret

예를 들어, 사전의 예시 중에서, ①, ②, ⑧, ⑩, ⑬에 쓰인 break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목적이 되는 대상을 파괴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break되는 대상이, 사물이거나 몸의 일부 그리고, 하나의 형태를 갖춘 세트이든, break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깨고 부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⑥, ⑦의 의미는 다르다. ⑥, ⑦에서는 어떤 행위나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지되는 의미를 break로 표현한다. 또한, ⑨에서는 break가 약속을 위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⑭에서 쓰인

2) 원래 사전에는 24개의 정의로 구분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의미는 제외하고, 설명에 필요한 의미만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break는 어떤 내용을 드러내서 알리는 의미로 쓰고 있다. 또한, 각 범주 내에서도, 의미적인 유형이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①에서 파괴되는 대상이 물건이라면, ②는 사람의 신체 부위인 뼈가 break된다. 즉, 대상을 파괴하는 의미는 같지만, 목적어에 따라, 동사의 의미 유형이 달라 질 수 있다. 이처럼, 다의어로서 동사 break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의미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범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유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전처럼 의미 범주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열되면, 영어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참고할 때, 제일 먼저 제시된 내용만 확인하고, 그 의미를 어휘의 모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의어 동사를 범주화하여 어휘를 공부하면, 많은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 유형 분류와 함께 살펴볼 것은 break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이다. 앞서 사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의어로서 break는 아주 다양한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다. 위의 사전에 언급된 한국어 대응 표현을 보면 ‘깨다’나 ‘부수다’등의 의미 외에도 break는 훨씬 많은 한국어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 쓰인 영어 예문을 살펴보면, break는 아주 다양한 한국어로 해석되어있다. 하지만, 영어 학습자들은 break를 오직 물건을 깨부수는 의미에 한정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다의어에 대한 효율적인 어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사전에 쓰인 한국어 의미 중에서, ①, ②, ③의 정의를 보면, ‘쪼개다’와 ‘찢다’를 비롯하여, 뼈를 ‘부러뜨리다’, ‘고장 나다’등, 아주 다양한 파괴의 표현을 한국어로 쓰고 있다. 아래의 예문으로 영어 break가 한국어로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1) a. She broke the cup in two³⁾.
b. 컵을 두 조각으로 깨다.
- (2) a. He broke a branch from the tree.
b. 나뭇가지를 꺾었다.
- (3) a. The dog bit me but didn't break the skin.
b. 그 개가 나를 물었지만 피부가 찢어지지는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 (1)의 경우처럼 break의 한국어 번역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응표현은 ‘깨다’나 ‘부수다’등이지만, 예문 (2)와 (3)처럼 ‘꺾다’나, 피부가 긁혀 ‘찢어지다’ 등의 파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하나의 동사 break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아주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사용되는 다의어 동사 break를 가지고, 명사 목적어와 결합할 때, 어떠한 한국어로 표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동사 break는 다의어로서 아주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의어 의미 연구에 있어서 흥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퍼스 자료에서 추출한 영어 동사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의미 범주를 바탕으로 동사의 의미 유형을 세분화하여 나눈다. 아울러,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명사 목적어와 함께 쓰일 때, break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대한 한국어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 유형 분류와 한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에서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3)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예문 참조(<https://endic.naver.com>)

break의 의미에 대해 영어 학습자들이 동사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목적어에 따라 break에 대한 한국어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의 한정적인 의미 사용에 벗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다의성을 가진 하나의 어휘를 가지고 여러 언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영한사전 편찬 및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공 지능 번역 등 영한 관련 번역의 코퍼스 자료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1.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자료인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를 이용하여, 영어 동사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명사 목적어를 추출하여, 동사의 의미 유형을 분류한다. break⁴⁾와 결합하는 목적어 연어를 알아보기 위하여, COCA에서 앞, 뒤 나타나는 단어의 수를 앞에는 0개로 지정하고, 뒤에 이어지는 어휘의 수는 2개로 하여 뒤쪽에 명사 연어가 오게 설정하였다. 또한 COCA의 문어자료에서, MI(mutual information)수치⁵⁾ 0이상의 빈도수 상위 200⁶⁾개의 명사 목적어를 추출

4) COCA에서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추출할 때, 동사의 시제는 목적어 연어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break]로 검색하였다.

5) 권혁승(2008)에 따르면 MI(Mutual Information score for the collocates 의)수치는 연어로 된 두 단어가 코퍼스자료 전체에서 나온 빈도수와 두 단어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근접하여 나타난 빈도수를 비교해서 나온 수치를 말한다. 또한, 심지영(2010)은 코퍼스 빈도수 결과, MI 수치가 0이상이면 두 언어의 연어 결합은 유의미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결합된 두 언어의 정보공유 정도와 결합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6) COCA에서 코퍼스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의 수는 100개로 정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00개 이상의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살펴보고자 200개를 추출하였다.

하여 분석하였다. 동사의 의미 범주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고 코퍼스의 빈도수에 따라 나눈다. 각 범주는 목적어의 유형을 분석하여 소분류에 해당하는 동사의 의미 유형을 분류한다. 또한, 본 연구는 코퍼스에서 나온 목적어 연어를 바탕으로 break가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break의 한국어 번역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어 대응 표현은 한국어 사전과 말뭉치 자료⁷⁾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연어와 코퍼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다의어 분석에 대한 연구 방법과 다의어의 의미 확장의 한 방식인 은유와 환유와 같은 비유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또한, 동사 break에 대한 연구 방법론으로 인지론적인 관점과 어휘유형적 접근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본 논문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break의 의미 지도를 완성하고 동사 의미 유형을 알아본다.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범주에 따라 동사를 의미 유형으로 세분화 시키고, 분류된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어휘유형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영어 동사 break의 의미 지도를 제시하고, 의미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조사 분석한 의미 유형과 목적어 연어에 따른 동사 break의 한국어 번역 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코퍼스와 한영 번역 자료를 통해 개별 의미 유형에서 동사 break가 명사 목적어 연어와 결합할 때, 한국어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고, 앞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

5장의 결론에서는 전체 연구의 결과에 대해 요약 정리한다. 동사 break

7) 한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참고한 한국어 말뭉치 자료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와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시스템(<http://kkma.snu.ac.kr>)이다.

의 의미 유형과 한국어 대응 표현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언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론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어와 코퍼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다의어의 연구 방법과 다의어의 의미 확장 방식을 소개한다. 또한, 인지 의미론적 접근과 어휘 유형론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다의어 동사 break와 관련된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이론적 배경

2.1.1 연어와 코퍼스⁸⁾

연어(collocation)의 사전⁹⁾적 정의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말”이다. 한 마디로 자주 함께 사용하는 언어의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테니스를 치다’는 표현을 할 때, ‘play tennis’,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는, ‘make a mistake’처럼, 운동 경기는 언제나 ‘play’라는 동사와 결합하고, ‘mistake’는 ‘make’와 함께 쓰인다. 이렇게 연어는 어떤 어휘는 특정한 어휘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

8) 연어와 코퍼스에 대한 일부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https://endic.naver.com>)를 참조하였다.

9) 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마다, 연어를 다양하게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어는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오랫동안 함께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어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의 긴밀한 결합을 연어 관계(collocational relation)라고 하고, 구체적 내용을 가리킬 때에는 연어 구성(collocational structure)이라고 부른다.

연어는 언어학자 퍼스(Firth)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 연어에 대한 개념이 발전해 나갔다. 또한 연어의 결합은 동사와 명사만 묶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동사+명사(submit a report), 형용사+명사(a difficult decision), 명사+동사(the fog closed in), 명사+명사(radio station), 부사+형용사(extremely inconvenient) 그리고, 동사+부사(appreciated sincerely) 같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내며, 이를 어휘적 연어라고 한다. 다른 연어로는 문법적 연어가 있는데,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기능어(대명사, 전치사, 관사)와 같이 문법적 기능이 있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come to an arrangement’의 경우는 ‘동사+전치사’의 연어라 할 수 있다(Benson, Benson & Ilson: 1997a, b).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연어 중에서도, ‘동사+명사’의 연어 관계 유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코퍼스에 대해 살펴보자.

코퍼스(corpus)는 라틴어로 ‘몸’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언어학에서 코퍼스란, 언어 연구를 위해 모아놓은 텍스트의 집합인 언어자료를 말하며, ‘말뭉치’로 쓰인다. 오늘날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컴퓨터의 활용이 많아지고,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던 연구 방식 보다는 객관적인 언어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컴퓨터로 전산화된 텍스트의 집합인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언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퍼스는 언어 연구를 위해 컴퓨터로 읽을 수 있게 모아놓은 언어자료의

집합체이다. 코퍼스를 가지고 언어를 연구하는 코퍼스 언어학은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통계와 같이 언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외국어 습득에 대한 연구나, 언어 교육 관련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편찬 시에는 아주 중요한 언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두 언어에 대한 병렬 언어 코퍼스의 경우는 번역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자 코퍼스 등은 외국어 학습 시 생기는 오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처럼 본 연구의 자료 분석도 코퍼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2.1.2 다의어

다의어(polysemy)는 하나 형태를 가진 어휘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흔히, 다의어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¹⁰⁾. Cruse(2000: 109)는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관련된 뜻(meaning)이나 의의(sense)를 지닌 것을 다의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Ullmann(1962: 62)은 다의어를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공시적으로는 하나의 어휘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통시적으로는 한 어휘가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0) 한 어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는 동음이의어인지 아니면 다의어인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break를 다의어로 보고,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2.1.2.1 다의어의 연구 방법

다의어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먼저, 추상적인 하나의 의미를 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공통된 핵심의미를 찾아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연구 방법이 다르다. 추상적인 단일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어휘가 기본적인 하나의 의미만 가지며, 다른 의미가 생기는 이유는 문맥에 따라 추론된다는 입장이다¹¹⁾. 이에 반해 Bendix(1966)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개별적인 의미를 통합할 수 있는 추상적인 단 하나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에 해당하는 핵심의미를 찾아야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나중에 기준속성모형(criterial attribute model) 연구로 발전하였다. 어휘의 다의성을 논할 때 주로 등장하는 접근법으로는 기준속성모형과 의미망 접근법을 들 수 있겠다. 기준속성모형은 추상적인 핵심의미(core sense)를 설정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범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를 보완하여 제시한 이론이 원형모형설(prototype model)이다. 여기서는, 고전적 범주화에 해당하는 기준속성모형, 원형모형설 그리고, 의미망 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Ruhl(1975)은 이를 동사 break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 a. John broke the glass.
- b. The glass broke.
- c. John broke the truce.
- d. *The truce broke.
- e. The news broke.

Ruhl은 외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다의어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예에서, a와 b는 자동사와 타동사에 따라, 사역의 의미가 있는지 구별되고, a와 c는 추상성과 구체성과 고의성에서 구별되고, d와 e는 추상명사가 자동사와 쓰일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Ruhl은 어휘의 외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내포하는 통합의미로 다의성을 정의해야 된다고 보았다.(김명숙 1992 참조)

기준속성모형은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고, 새로운 구성원이 그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 정해진 범주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범주가 A, B, C, D등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면, 그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준속성모형에서는 핵심이 되는 추상적인 의미를 설정하여 그러한 조건에 맞는다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다의어에는 추상적인 하나의 핵심의미가 있으며 그 중심의미에서 개별 의미가 나온다고 보며, 도출된 한 어휘의 추상화된 핵심의미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추상화접근¹²⁾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추상화 접근에서는 개별의미가 하나의 핵심의미만이 기억에 저장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준속성모형은 속성을 정의할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자연 언어에서 범주를 나누는 때는 한계가 있다¹³⁾.

원형모형설은 기준속성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다. 원형모형설에 의하면 범주 내에서 구성원간의 관계는 전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범주 내에서, 전형성과 일반성이 높은 것을 원형(prototype)이라고 한다. 즉,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자주 언급되는 것을 원형이라고 하며, 어떤 대상을 범주화 할 때는 원형을 중심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새(bird)라고 하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있는 동물을 가리킨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참새’나 ‘울새’ 등을 떠올린다¹⁴⁾. Rosch(1978)는

12) 추상화 접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Bendix(1966)와 Bennett(1973)가 있다. Bendix(1966)는 ‘have’, ‘take’, ‘give’, ‘get’ 등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모든 동사들이 공통적으로 ‘A has B’라는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ve’를 추상적인 핵심의미로 설정하였고, Bennett(1973)은 전치사 ‘over’에 대해 8개의 예문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공통된 하나의 핵심의미로 SUPERIORITY(우월)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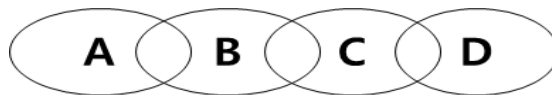
13) 예를 들어, 야구공의 속성을 동그란 모양에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가죽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야구할 때 쓰는 고무로 된 야구공 등은 야구공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14) Rosch(1975)는 200명을 대상으로, ‘새’, ‘채소’, ‘가구’ 등에 대해, 전형적, 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주의 구성원 중에서도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 대표성이 높은 것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새를 고르라고 할 때, 병아리나 펭귄보다 울새가 되고, 이렇게 대표성이 높은 것이 원형적 구성원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원형에서 벗어나더라도 유사성을 가지면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원형모형설에서 범주화는 원형적 구성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적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펭귄이나, 타조가 모든 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형적으로 어딘가 새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¹⁵⁾. 이렇게 Rosch(1973)가 제안한 원형 범주(prototype category) 이론은 하나의 중심의 의미가 있고, 비 중심적인 의미를 주변적 의미로 보았다. 원형모형설은 범주 구성원간의 유사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문화권마다, 원형의 정의가 다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의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원형 이론을 Lakoff(1987)는 방사상 범주(Radial Category)¹⁶⁾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방사상 범주는 하나의

통, 비전형적 보기, 세 가지로 나누어 어느 것이 더 원형적인지를 구분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 15) 이러한 유사성은 Wittgenstein(1953: 32)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Wittgenstein의 가족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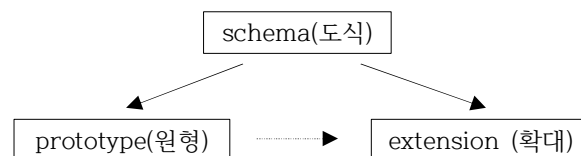
한 범주 안에 A, B, C, D의 속성이 있고, A는 B와 어느 정도 속성을 공유하고, B는 C와, 그리고 C는 D와 부분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A와 D는 전혀 공유하는 속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중간에 있는 B와 C로 인해 A와 D도 관련이 있다고 간주한다. 원형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범주는 속성끼리의 부분적 닮음과 인접성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유사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16) Lakoff(1987)는 방사상 범주를 통해 원형이론에서 의미 확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방사상 범주의 구성은 하나의 중심이 되는 핵 의미와 여

핵심 의미와 여러 개의 파생 의미로 나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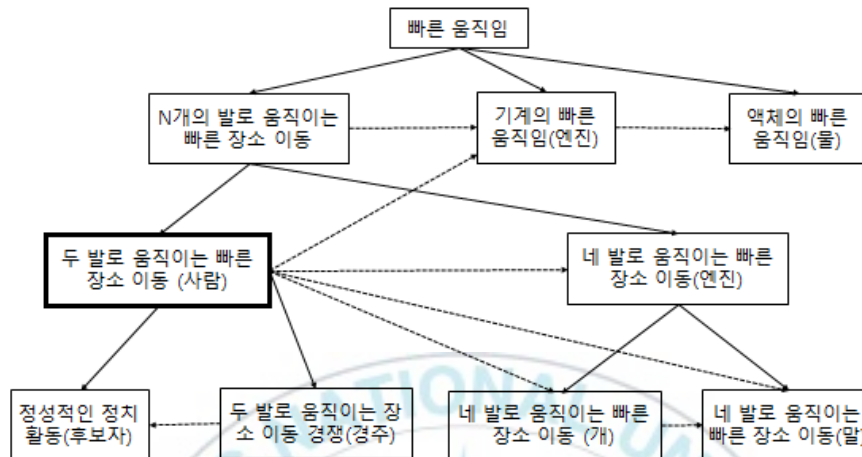
원형모형은 다의어 의미 분석에서 또 다른 접근법은 Langacker(1987)가 인지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한 의미망(semantic network) 이론을 들 수 있다. 의미망은 단어의 원형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각 각의 의미 항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망 시스템이다. Langacker(1987)는 망모형(network model)을 통해서 개별적인 어휘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범주 내부구조를 도식화시켜 보여주었으며, 그러한 도식을 통해 각 어휘 간의 관련성을 구조화시킨 것이 의미망모형이다¹⁷⁾. Langacker(2002)는 의미망 모형을 이용하여 영어 동사 ‘run’의 의미망 모형을 아래의 <그림 1>로 나타내었다¹⁸⁾.

러 개의 비 중심적 의미로 이루어지며, 다의어의 구조는 하나의 핵 의미에서, 방사상 구조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간다.
17) Langacker(1987)의 의미망을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도식은 인간의 인지적 개념으로 활성화되는 지식 체계를 의미하며 원형은 다의어에서 원형적인 의미이고, 확대는 원형에서 확장되어 나간 의미를 말한다. 의미망 모형은 도식, 원형, 확대의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지며 공통적인 속성은 수직적이고, 유사한 관계는 수평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18) 의미망 분석을 통한 영어 동사 ‘run’에 대한 연구로는 정규식(1995)이 있으며, ‘run’ 외에도, ‘walk’와 ‘creep’ 등의 이동 동사의 의미 확대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run의 의미망모형 (Langacker 2002: 267)



위의 <그림 1>에서 동사 run의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두 발을 가진 사람의 빠른 장소 이동(rapid 2-legged person locomotion)’이다. 이 중심이 되는 원형의 의미가 점선으로 표시된 의미로 확장(extension)되어, ‘빠른 움직임’을 의미하는 개념 도식(schema)를 만든다. 의미망 모형에서 중요한 의미 확장은 인간의 인지적 사고 능력과 관계가 깊다. 의미망 구조는 개별의미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고, 의미가 확장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미망 모형은 고전적 범주화에서의 핵심 의미 의미연쇄방식의 좋은 점을 취하고, 보완하여 다의어를 분석하려고 했다.

Langacker의 의미망 모형은 인지 문법의 틀에서 다의어의 의미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원형의미에서 은유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미가 확대되는 것은 사람의 인지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의어에 대한 인지 문법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의어 동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¹⁹⁾.

이상으로 다의어에 대한 여러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원형적인 핵심 의미를 정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준 속성 모형과 원형모형설은 유사점이 있으며 의미망접근은 원형 의미에서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란 언어에 있는 다의어의 의미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면, 근래에는 어휘 유형적인 관점에서 다의어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한다. 두 언어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의 의미를 나열하여 언어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접근 방법이다. 어휘 유형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다의어의 의미 확장 방식에 살펴보려고 한다.

2.1.2.2 다의어의 의미 확장

다의어가 의미를 확장시킬 때는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라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인간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무한히 증가하는 어휘들을 범주화 시켜 창조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범주화의 과정은 인접성과 유사성이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인접성과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와 환유가 대표적인 의미 확장의 기제로 활용된다. Lakoff & Johnson(1980)은 대상의 외형적 특성과 의미적 특징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은유를 통해서 어휘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환유는 대상 간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표현 범위를 넓혀나간다고 하였다. 다의어

19) 영어 다의어 동사에 대한 인지 문법적인 연구로는 김명숙(1992), 김은경(2012), 나익주(2012), 박영태(2014), 송점중(2010) 등의 연구가 있다. 다의어 분석에 대한 다른 연구에는, 인지 문법의 틀에서 다의어 분석방법을 소개한, 이창희(1998)가 있으며, 임지룡(2009)은 인지 언어학의 관점에서 다의어 관점과 의미 확장 분류기준을 논의하였다.

동사 break의 의미도 은유와 환유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은유와 환유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두 각 비유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은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은유는 어떤 한 대상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대체하여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확장의 한 방법이다. 언어학에서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은유가 아니라 인지 언어학에서 다루는 개념적 은유로 의미 확장을 설명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1980)의하면, 은유란 하나의 경험을 다른 종류에 의해 이해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하나의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으로 개념화 되는 인지작용으로 보았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를,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 방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로 체계화 시켰으며, 이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s)라고 한다. 먼저, 구조적 은유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구조적 은유란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확실한 개념에 의해 구조화 시켜 이해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근원영역으로 목표영역을 구조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은 여행(LOVE IS A JOURNEY)’²⁰⁾이라고 한다면, ‘사랑(target)’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여행(source)’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즉, 연인들은 ‘여행자’가 될 수 있고, 여행하는 거리는 관계의 진전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구조적 은유의 예이다.

20) Lakoff and Johnson(1980)은 개념적 은유를 나타낼 때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4) ARGUMENT IS A WAR.

- a. He attacked every weak point in my argument.
- b. His criticisms were right on target.

근원영역에 해당하는 전쟁을 추상적인 개념인 논쟁이라는 목표영역으로 구조화 시켜 논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4)에서 마치 전쟁처럼 적을 공격하고 방어하듯이, 논쟁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공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 총을 쏘듯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일어나는 많은 행위가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구조화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존재적 은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5) THE MIND IS A MACHINE.

- a. My mind just isn't operating today.
- b. I'm a little rusty today

존재적 은유는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경계가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형태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은유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처럼 무형의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 표현하는 것이다. (5)에서 '마음은 기계이다'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기계'라는 근원영역을 물리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상과 동일시하여, 마치 기계처럼 인간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작동하다'로 표현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기계와 같이 인간이 '녹슬'었다는 은유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존재 은유는 무형의

추상적인 대상에 유형의 존재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개념 은유의 마지막은 지향적 은유²¹⁾이다. 지향적 은유는 공간적 방향과 관련이 있다. 즉, 개념을 위, 아래, 그리고, 안과 밖, 앞, 뒤처럼 공간과 방향성에 비유해서 개념을 이해한다. 지향적 은유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6) HAPPY IS UP, SAD IS DOWN.

a. I'm feeling up.

b. I'm feeling down. (Lakoff & Johnson 198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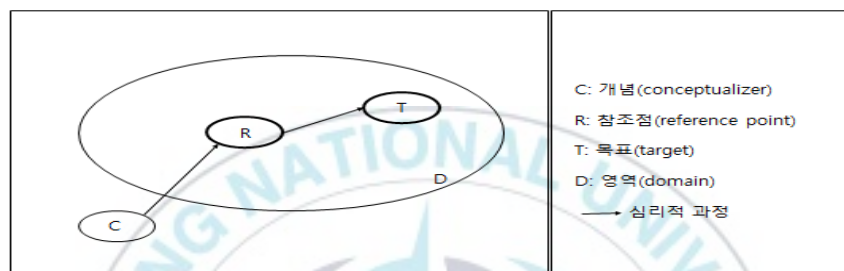
지향적 은유에서는 ‘행복’이나 ‘슬픔’이 다른 개념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방향성을 통해서 표현된다. 즉, (6a,b)처럼 기분이 좋으면, 위로 향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래’쪽 방향으로 향한다. 다음은 다의어 또 다른 의미 확장 기제로 많이 활용되는 환유에 대해 알아보자.

환유(metonymy)는 은유와 달리 하나의 개념 영역에 속하는 두 요소를 인접성(contiguity)으로 구조화 시키는 것이다. 은유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에 비유하는 두 개의 영역과 관련된 것인 데 반해, 환유는 하나의 동일한 영역에서 전체를 나타낸다. 즉,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지칭하는데 활용되는 비유법이다. 예를 들어, “There are a lot of good heads in the university”라는 문장에서, ‘good heads’를 ‘훌륭한 두뇌’라고 할 때, ‘우수한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훌륭한 두뇌’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두뇌(부분)’를 사용해서, 똑똑한 사람(전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Lakoff & Johnson(1980)은 실재하는 어떤 개체를 나타내는 개념을 다른 관련 있는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1) 방향적 은유라고도 함

이러한 Lakoff & Johnson(1980)의 환유에 대한 개념을 Langacker(1993)은 참조점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참조점 과정을 나타냈었다.

<그림 2> 참조점 과정



<그림 2>에서 개념자(C)는 목표(T)를 바로 언급하지 않고, 이보다 더 현저한 참조점(R)을 이용한다. 굵은 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저해지는 것을 나타내며, 화살표는 개념자의 목표까지 이르는 정신적 과정을 나타낸다. 즉, 어떤 대상을 지적할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관련이 있으면서, 현저한 대상을 참조점으로 삼아 언급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Langacker가 의미하는 환유는 이렇게 목표를 표현할 때, 관련성과 현저성이 높은 인접한 참조점으로 그 대상을 비유하는 것이다. Lakoff & Johnson(1980)에 의하면, 은유는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면, 환유는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환유는 한 개체를 이용해서, 다른 개체를 나타낸다. 다음은 환유에 대한 예들이다.

- (7) a. He's in *dance*.
b. We need some *new blood* in the organization.

- c. I bought a *Ford*.
- d. The sax has the flu today.
- e. It's been Grand Central Station here all day.

(Lakoff & Johnson: 1980)

(7a)에서 ‘dance’는 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용계(the dancing profession)’를 의미한다. 부분에 해당하는 ‘dance’가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7b)의 ‘new blood’는 새롭게 수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필요한 새로운 사람(new people)들을 전체를 의미한다. (7c)에서 ‘Ford’는 생산자인 포드 자동차 회사(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자동차회사 포드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칭한다. 또한, 환유는 사용하는 물건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표현한다. (7d)에서 ‘sax’는 연주하는 악기인 색소폰이지만, 색소폰이 독감에 걸렸다고 표현할 때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7e)는 ‘Grand Central Station’을 지시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언급하면서, ‘북새통’의 나타내며, 사람들이 붐비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환유는 일상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방식의 일부이다. 환유의 개념은 한 사물과 다른 것에 대한 관계를 개념화 시켜서 나타낸다. 포드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나,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 또는 자동차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떠올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연상한다. 은유와 마찬가지로, 환유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역’으로 사건을 지시할 때, 이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물리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상으로, 다의어에서 의미 확장의 많이 활용되는 은유와 환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동사 break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2 연구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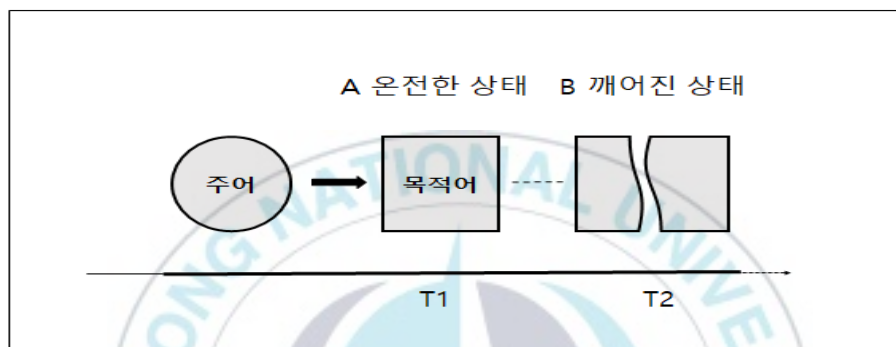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동사 break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break에 관한 이전의 연구로는 break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상관관계를 설명한 Ney(1990)가 있다. Ney(1990)는 break를 의미를 1차적, 2차적, 3차적 의미로 구분하고, 유의어로 통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김명숙(1992)과 이기동(1995)이 있으며, 김명숙(1992)은 하나의 어휘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미 확대는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의 의식이나 사고방식과 관계가 있음을 영어와 한국어를 의미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변이형들의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Langacker의 의미망 모형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기동(1995)은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break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어휘 유형론적인 입장에서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대응어 ‘깨다’를 대조 연구한 정희란(2019)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언어학적인 틀에서 동사 break의 의미를 분석한 이기동(1995)의 연구를 먼저 살펴보고, 어휘유형적 관점에서 비교한 정희란(2019)의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정희란(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어휘 유형적으로 접근하여 동사 break의 한국어 대응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인지 의미론적 접근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break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기동(1995: 135-143)은 동사 break의 의미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²²⁾. break의 기본의미를 온전한 대상(목적어)이 주어가 가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연속 상태가 깨어지거나 부서져 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기동(1995)은 이를 <그림 3>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타동사 break의 의미 과정



위의 그림은 어느 한 지점, T1에서 A와 같이 온전한 상태에 있던 대상이 주어가 가하는 힘(화살표로 표시)에 의해 B와 같이 깨어진 상태에 이르는 break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을 통해 타동사로 break의 의미를 살펴보자.

- (8) a. John broke a box into pieces.
- b. He broke a branch from a tree.
- c. John broke his leg.
- d. He broke the skin on his elbow.
- e. He broke a sewing-machine.

22) 본 연구에서는 타동사의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의미 범주를 분류하므로, 타동사에 대한 연구만 살펴보도록 한다.

break의 대상은 구체적이며, 힘이 가해서 파손 될 경우는 연속성이 깨져, 여러 조각이 난다. (8a)의 ‘상자’는 여러 파편으로 깨지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break가 모든 대상을 분해해서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8b)의 break는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 ‘나뭇가지’는 부서진다는 의미 보다는 두 개의 가지로 나뉘는 분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기동(1995)은 깨어지는 것을 육안으로 보지 않지만, break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8c)의 구체적인 대상인 ‘다리’가 깨진 것은 ‘뼈’가 손상되었다는 의미인데, break되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break는 평면적인 대상을 파괴할 때도 쓰인다. (8d)의 피부 표면이 break 된다는 것은 표면의 연속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를 break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e)에서는 ‘고장’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재봉틀’같은 온전한 개체가 파괴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break로 나타내었다. 아래의 예문은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예들이다.

- (9) a. He broke the electric current/his fast.
- b. He broke a set of books.
- c. He broke his words/a regulation.

break의 대상은 온전한 형태가지고 있는 구체적 대상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의 과정과 흐름에도 사용된다. (9a)의 ‘전류’와 ‘단식’은 상태의 연속이다.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가 차단되어 끊기는 것이고, ‘단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의 연속이 깨지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먹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9b)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망가지게 되어 변화되는 것도 break로 쓴다. ‘한 질의 책’을 break했다는 것은 순서에 맞춰있는 것이 어그러진다는 것이다. (9c)의 break는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도 사용된다. 이는 말과 행동 사이에 선이 있다고 영상화시킨다면, break는 이 선을 끊어 버리는 것을 나타낸다. ‘약속’은 말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규칙이다. ‘규정’을 어기는 행위도 마치 물건을 부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른 break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 (10) a. He broke the news/the code/a way.
 b. The cushion broke his fall.
 c. It broke his spirit.
 d. He broke the horse/the man.

물건이 부서질 때는 여러 조각의 파편이 생기고, 조각이 바닥에 흩어질 수 있다. (10a)에서 ‘뉴스’와 같은 소문도 용기에 들어있거나,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다고 여길 수 있으며, 용기가 파괴될 때 퍼지게 된다. 이때, break는 소식이 퍼지는 것을 나타낸다. 단단한 표면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그것을 깨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으며, ‘암호’는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있는 대상을 볼 수 있다. 또한, ‘길’은 break로 나온 결과를 의미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0b)에서 break는 움직임을 끊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추락’은 일정한 속도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선으로 볼 수 있고, 이때 break는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0c)의 ‘정신’은 저항하는 힘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것은 꺾이는 것을 개념화 하였으며, break로 나타내었다. (10d)에서도, ‘말’과 ‘사람’의 강한 힘인 의지를 꺾는 것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인지론적인 틀에서 동사 break를 설명한 이기동(1995)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기동(1995)은 break를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누어 동

사의 의미를 정리하였고, 인지 의미적인 관점에서 동사를 분석하여 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동사 break의 기본적인 의미는 온전한 상태의 파괴되고, 그로인해 생기는 상태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내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동사 break를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한 이기동(1995)의 연구는 break가 지니고 있는 원형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주어가 가하는 충격에 의해 break 되는 것은 입체적인 형태의 단단한 대상이며, 이는 평면적인 표면의 연속성이 파괴될 때도 쓰인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은 추상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인지적 접근은 한 언어에서 어휘의 원형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두 언어를 비교하는 데는 인지적 접근법에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희란(2019)의 연구는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대응 동사 ‘깨다’를 어휘 유형적으로 비교하여, 동일한 의미를 가진 영어와 한국어 동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한 언어에서 나타나는 동사에 대한 의미 분석이 아닌 대조 언어학적 입장에서 다의어를 분석한 어휘 유형적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2.2 어휘 유형론적 접근

어휘 유형론의 접근 방식은 한 언어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대상 언어를 비교하여 의미를 분석하는 대조 언어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언어의 유형에 따라, 언어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각 언어에 따라 어떤 언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른 언어에서는 하나의 표현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피아노 같은 악기를 다룰 때는 ‘연주하다’라고 하고, 운동을 할 때는 ‘경기하다’, MP 플레이어 같은 음악 기기를 켤 때는

‘틀다’ 등 대상에 따라 표현이 다르지만, 영어에서는 ‘악기’, ‘스포츠’, ‘기기’ 등에, play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의성을 가진 동사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개별 의미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의미적인 유사성을 연구할 때, 한 언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비교해 봄으로써 언어의 유형적 특징과 보편성을 밝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을 구분하고, break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대응 표현 ‘깨다’를 어휘 유형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정희란(2019)의 연구를 논의해 보고,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2.2.1 공어휘화와 의미지도

공어휘화(colexification)²³⁾는 François(2008)이 소개한 개념으로 기능적으로는 별개의 의미 구분되지만, 사용될 때는 같은 하나의 어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약속을 ‘꼰다’와 창문을 ‘꼰다’에서 하나는 약속을 어긴다는 의미이고, 창문은 말 그대로 파손되었다는 뜻으로 쓰지만, ‘깨다’라는 동일한 어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때, 공어휘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François(2008)는 공어휘화의 개념은 다른 언어와

23) Mayer, T. *et al.*(2014)는 공어휘화(colexification)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Here we use the term colexification (originally from François(2008)) to refer to the situation in which two or more of the meanings in our sources correspond to the same lexical item in one of the languages”. 다시 말해서, 한 언어에서 기능적으로는 다른 두 개의 의미로 표현되는 의의들이 동일한 하나의 어휘형태로 대응해서 나타나면 공어휘화한다고 말한다.

비교하여 설명하는 데 적용한다. 다음 예문으로 공어휘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1) a. He broke the glass.

b. 그는 유리를 깼다.

(12) a. He broke the watch.

b. 그는 시계를 *깼다/고장냈다.

위의 예문 (11a)에서 영어 동사 ‘break’는 한국어 대응 표현 ‘깨다’로 해석하여 (11b)의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12a)에서 시계와 같이 기계 장치가 파손되었을 때, 영어로는 ‘break’로 나타내지만 한국어로는 (12b)처럼 ‘고장나다’로 표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처럼, 영어동사 ‘break’는 물건이 파괴 되었을 때는 한국어 ‘깨다’로 쓰이지만, 기계 장치와 같은 대상과 함께 쓰일 때는 ‘깨다’로 나타나지 않고 ‘고장나다’로 쓰이는데 한국어 동사 ‘깨다’와 영어 동사 ‘break’는 두 동사의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즉 공어휘화하는 의의(sense)²⁴⁾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 동일한 두 어휘를 비교하는 경우, François(2008)가 제시하는 공어휘화에서는 의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François(2008)는 어휘를 유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다음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해당 어휘의 의의를 구분하고, 다음으로는 의의를 의미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이어주고, 마지막으로 어휘들 간의 연관성을 의미지도를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24) François(2008)에서 말하는 의의는 물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원자(atom)처럼 생물학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다음에서는 François(2008)가 보여준 어휘유형론의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의의 구분하기에 대해 다음의 <표 1>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표1> 영어 ‘straight’와 불어 ‘droit’의 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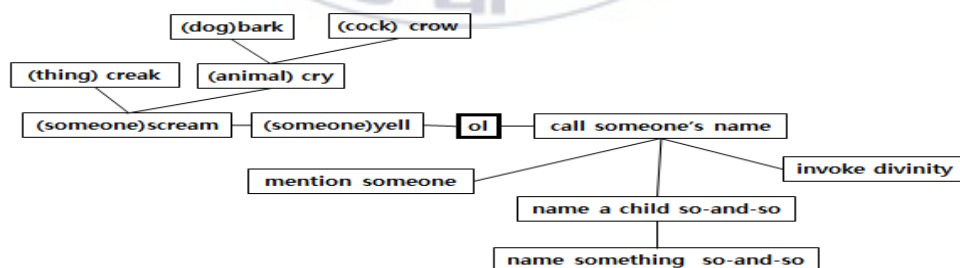
영어 ‘straight’의 의의	불어 ‘droit’의 의의
(1) <rectilinear> (a straight line)	(1) <rectilinear> (un trait droit)
(2) <honest> (a straight guy)	(2) <honest> (un type au but)
(3) <directly> (straight to the point)	(3) <directly> (aller droit au but)
(4) <frank> (straight talking) (5) <heterosexual> (gay or straight) (6) <classical> (a straight play) (7) <undiluted> (straight whisky) (8) <immediately> (straight away)	(4) <right-hand> (le côté droit)

두 어휘를 단순히 나열하여 살펴보면 영어 straight의 의의는 여덟 개이고, 불어의 droit에는 네 개로 straight가 droit의 의의보다 더 많다는 정도의 정보만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표1>처럼 의의로 두 언어 분류해보면, 영어와 불어는 (1-3)의 의의는 공유하지만, 영어 straight는 불어 droit의 (4)의 의의가 없고, droit에는 straight의 의의 중에서 (4-8)의 의의가 없다. 이렇게 어휘를 의의로 비교하면, 두 언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어휘 유형론의 두 번째 단계인, 의의 연결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의의를 분류하고 난 다의어 망을 통해 다음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의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François(2008)에서는 Mwotlap어 동사 ‘ol’를 가지고 의미적 연관성이
 에 대해 보여주었다. Mwotlap어에서 ‘ol’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creak>,
 <crow>, <yell>, <scream>, <hail someone>, <mention someone’s
 name>, <bark>, <call something such-and-such>, <invoke a
 divinity>, <name a child so-and-so>, 등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단
 순히 열거해서는 각 각의 의의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
 다. 하지만, 의의를 자세히 분석하면 비슷한 의의끼리 그룹을 지어 연결하
 여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소리는 <crow>와 <bark>로 연결하
 여 묶을 수 있고, <yell>과 <scream>은 사람이 내는 고음의 일종으로 연
 관시킬 수 있으며, <hail someone>, <invoke a divinity> 그리고
 <mention someone’s name>은 사회적인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name a child so-and-so>는 사람의 이름
 을 짓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ol’의 의의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그림4>처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그림4>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Mwotlap어 동사 ol의 의의 연결



유형론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연결한 의의를 가지고 의미지도를 완성
 하는 것이다. François(2008)는 Haspelmath(2003)에서 개발한 의미지

도를 활용하여 어휘 의미지도를 어휘유형 분류에도 사용하였다²⁵⁾. Haspelmath(2003)는 의미지도라는 개념공간(conceptual space)²⁶⁾을 통해 동일한 의미가 다른 언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표시하였다²⁷⁾. 어휘 유형론에서 어휘 의미지도는 언어외적 기준연결망과 언어내적 범주화로 구성된다. 언어외적 기준연결망은 어휘의 기능적 특성과 실증적 검증을 통해 의의를 구분하여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고 가까운 의의들 끼리 이어주는 어휘 의미망을 가리킨다. 또한, 언어내적 범주화란 각 어휘가 공어휘화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김은일(2017b)은 François(2008)의 유형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WIN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과 언어내적 범주화를 <그림 5>으로 나타냈다²⁸⁾. <그림 5>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한국어 ‘이기다’와 비교하여 나타난 영어 ‘win’의 언어내적 범주화를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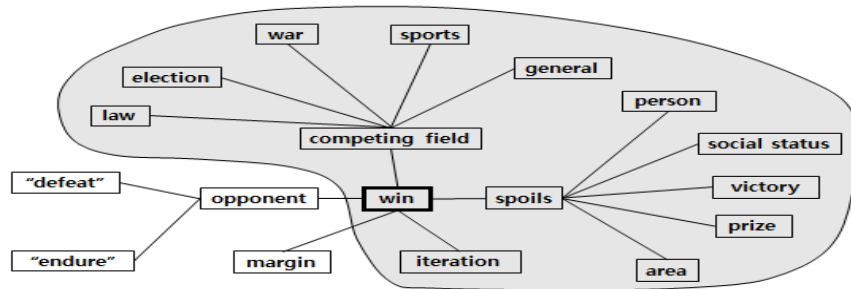
25) 의미지도모형(Semantic Map Model)은 언어 유형론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대조 언어학 관점에서 언어를 분석하여 언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탐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지은(2013)은 의미 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박진호(2012)는 의미 지도를 통해 한국어 어휘와 문법 요소를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26) 개념공간은 특정 의미영역(semantic domain)과 관련된 etic 범주들로 구성되는 언어 보편적인 공간이며, 이 개념공간을 밑그림으로 삼아 이 위에다가 특정 언어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나타내는 의미의 범위(range)를 나타낸 것이 의미지도이다. (박진호 2015: 15)

27) 의미지도는 한 언어에서는 뭉뚱그려져 표현되는 의미/용법들이 다른 언어에서는 구별되어 표현되는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하나의 형태에 의해 뭉뚱그려져 표현되는 의미/용법들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형태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용법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진호 2015:19)

28) 김은일(2017b)는 어휘 유형적 접근 방식으로 영어 동사 ‘win’과 ‘이기다’의 의미지도를 제시하였다. 김은일(2017a)에서는 영어 동사 ‘open’과 ‘열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그림 5> ‘win’의 의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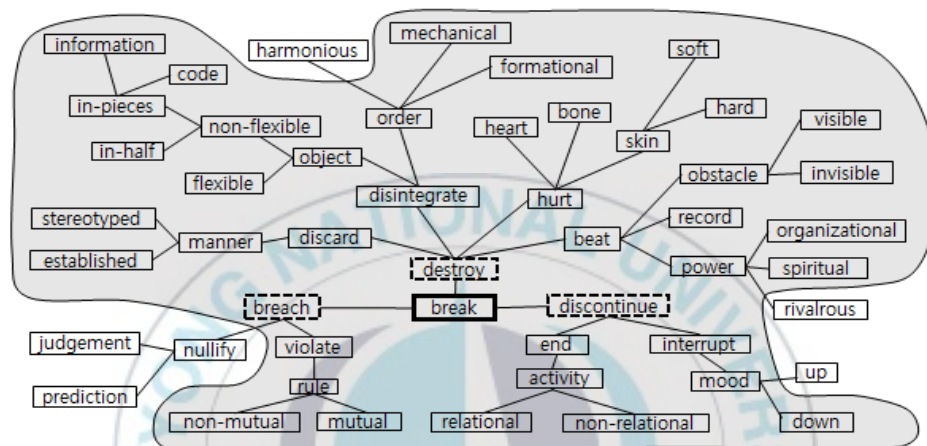
지금까지, 어휘 유형론에 관점에서 어휘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François(2008)은 한 단어의 의미를 먼저 분류하고, 다음으로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미를 묶어 연결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한 어휘에 대한 단어의 보편성과 유형적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François(2008)의 연구 접근 방식은 다양한 단어를 비교하여 각 단어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정희란(2019)은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동사 ‘깨다’를 대조해 연구하였다. 정희란(2019)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2.2.2.2 break의 의미와 어휘 의미지도

정희란(2019)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코퍼스를 자료를 분석하여,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대응 표현 ‘깨다’의 의미를 세 가지 즉, {destroy}, {discontinue}, {breach}²⁹⁾로 나누었다. 다음 <그림 6>은 정희란(2019)

29) 정희란(2019)에서는 중심의의는 { }로 표시하고, 소분류는 < >로 나타내었

<그림 6> 어휘 유형적 접근에 따른 ‘break’의 의미지도³⁰⁾



정희란(2019)의 어휘 의미지도에 따른 BREAK³²⁾의 세 가지 중심 의의에 간단히 살펴보자. {destroy}, {discontinue} 그리고 {breach}의 순서로 차례대로 살펴보겠다.³³⁾

- 34 -

첫째, {destroy}부터 살펴보자. 정희란(2019)은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동사 ‘깨다’의 첫 번째 중심의의를 {destroy}로 구분하였으며, 파괴에 해당하는 의의를 다시, <disintegrate>와 <hurt>, <discard> 그리고 <beat>등으로 소 분류하여, 네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disintegrate>의 대상은 다시, 사물인 <object>와 질서와 순서인 <order>으로 나누고, <object>는 단단한 <nonflexible>과 잘 구부러지는 <flexible>로 이어서 연결하였다. <nonflexible>은 조각의 수에 따라, <in half>와 <in pieces>로 구분하였고, <in half>는 공어휘화를 하지 않고, <in pieces>에서만 ‘깨다’로 공어휘화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다음, <order>는 <formational>, <mechanical> 그리고, <harmonious>, 세 개의 하위 부류를 나누고, 영어에서는 <formational>과 <mechanical>의 의의가 있으며, <harmonious>는 한국어로는 ‘깨다’로 나타나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destroy’, ‘spoil’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살펴 볼 의의는 <hurt>이며, 그 대상을 심장, <heart>, 뼈, <bone>, 그리고 살 또는 살갗, <skin>으로 분류하였으며, <skin>은 피부를 나타내는 <soft>와 뼈와 가까운 피부인 <hard>로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hurt>의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skin>의 <hard>만 ‘깨다’로 공어휘화를 보여, 두 언어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정희란(2019)에서는 한국어의 ‘깨다’의 대상은 단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hard>의 의의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discard>에 대해 살펴보자, <discard>의 대상은 <manner>이며, <stereotyped>와 <established>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주로,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후자는 주로 오래된 전통 같은 관습을 나타낸다. 한국어와

할 때는 < >로 표시하였다.

영어, 모두 가지고 있는 의미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beat>의 의미는 <obstacle>, <record>, <power>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obstacle>은 다시 <visible>과 <invisible>로, 그리고, <power>는 <spiritual>과 <organizational>, 그리고 <rivalrous>로 나누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 했을 때, 각각의 언어는 <beat>의 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어휘화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었다. 즉, 한국어 ‘깨다’에는 <obstacle>의 <visible>은 나타나지 않고, 공어휘화하지 않으며, 영어에서는 <power>의 <rivarlous>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의미는 {discontinue}이다. 정희란(2019)은 일정하게 지속해오던 움직임이나 상태가 중단되는 것을 {discontinue}의 의미에 포함시켰다. 이를 다시, <interrupt>와 <end>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interrupt>의 의미는 분위기나 기분을 나타내는 <mood>가 대상이라면, <end>의 의미에는 활동인 <activity>가 해당된다. <mood>는 다시 동적이고 활기 찬 <up>과 조용한 <down>으로 분류하였고, <activity>는 관계를 중심으로 <rational>과 <nonrational>로 구분하였다. 정희란(2019)은 영어에서 <up>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아, 동사 ‘break’에 대신 ‘spoil’을 쓰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으며, ‘break’와 ‘깨다’, 모두, <rational>과 <nonrational>의 의미가 있으며, ‘깨다’로 공어휘화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희란(2019)에서는, 한국어에서 ‘깨다’와 함께 나타나는 ‘흥’이나 ‘기분’을 바탕으로 영어 ‘break’와 한국어 ‘깨다’의 의미에 <mood>를 포함시키고, <up>과 <down>으로 분류하여, 영어와 한국어가 공어휘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reach}를 살펴보자

세 번째, 의미는 {breach}이다. 정희란(2019)은 ‘break’와 ‘깨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법이나 약속을 위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 {breach}의 의미를 정하고, {breach}는 다시 <violate>와 <>nullify>

의 의의로 나누었다. <violate>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규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mutual>과 <not-mutual>로 분류하였다. 정희란(2019)는 한국어는 <mutual>에 대해서만, ‘깨다’로 공어휘화하였고, <nonmutual>은 ‘위반하다’로 표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여, 영어와 한국어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영어 ‘break’와 한국어 ‘깨다’의 코퍼스 자료를 분석했을 때, 한국어 ‘깨다’에는 <nullify>의 의의가 있지만, 영어의 ‘break’에는 그와 같은 의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overturn’이나 ‘reverse’로 쓰인다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어휘 유형적인 관점에서 다의어 동사 ‘break’의 의의를 한국어 대응 표현과 함께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유형론에서는 어휘를 의의 수준에서 비교하여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을 의미지도라는 그림으로 나타내어 확인하였다. François(2008)의 연구에 근거한, 정희란(2019)의 연구 방식은 두 언어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를 설정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희란(2019)은 영어 동사 ‘break’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의 ‘깨다’를 코퍼스와 사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동사의 목적어를 분석하고 두 동사의 중심의의를 기능적 특성에 따라, {destroy}, {discontinue}, 그리고 {breach}로 분류하였다. 연구에서 정희란(2019)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 세 가지의 의의를 공유하지만, 소분류에 해당하는 일부 의의는 ‘깨다’로 공어휘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destroy}의 <disintegrate>에서 <information>과 <code>는 ‘깨다’로 공어휘화하지 않고, ‘드러내다’나 ‘밝히다’ 그리고, ‘풀다’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breach}의 <rule>에서 <non-mutual>도, ‘깨다’보다는 ‘어기다’나 ‘위반하다’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희란(2019)이 영어 동사 ‘break’와 한국어 동사 ‘깨

다’에 대한 공어회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의의에서는 영어 동사 ‘break’가 ‘깨다’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는 영어 동사 break가 명사 목적어 연어와 결합할 때, ‘깨다’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깨다’외의 다른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한다.

연구를 위해서, 우선, 정희란(2019)에서 제시 되었던 의의는 범주로 구분한다. 또한, ‘break’와 ‘깨다’의 의의를 정하기 위해 동사를 의의 차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는 목적어 연어에 따른 break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중심이므로 영어의 명사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break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고, 어휘 유형적 접근 방법에 따라 동사의 의미 유형에 따른 break의 의미 지도를 다시 완성한다. 또한, break의 목적어 연어에 따라 분류된 동사의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한국어 대응 표현을 알아 보기위해서, 의미 지도에 표시된 break의 언어 외적 기준연결망과 언어 내적 범주화를 통해 한국어 대응 표현 중에서, ‘깨다’로 대응되지 않는 목적어 연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각 각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목적어 연어와 break가 결합할 때, 영어 동사 break는 ‘깨다’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한국어 대응 표현으로 해석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Ⅲ. break의 의미 지도 및 의미 유형

본 장에서는 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 break의 의미 범주에 대한 빈도수와 각 범주에 따른 break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break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된 코퍼스는 COCA이며, MI(mutual information)수치 0이상의 빈도수 상위 200개의 명사 목적어를 추출하여 동사 break의 목적어를³⁴⁾ 분석하여, 의미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휘유형적 연구 방법에 따라, break의 의미 지도를 제시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break의 의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3.1 break의 의미 범주와 의미 지도

의미 유형에 따른 break의 의미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break의 의미 범주와 코퍼스 자료에 나타난 각 범주의 빈도수 알아본다,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범주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어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에 따른 의미 지도를 제시한다.

34) break의 목적어 언어의 수는 총 128개로 분류하였는데, 동일한 명사에서 단, 복수형이 나올 경우, 빈도수가 낮은 것은 제외시켰으며, break가 전치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예, break into 등)와 다른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throw a breaking ball)는 언어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1.1 break의 의미 범주

정희란(2019)에 따라서, 동사 break의 의미 범주는 크게 세 가지, 즉, ‘파괴(destroy)’, ‘중지(discontinue)’ 그리고, ‘어김(breach)’이다³⁵⁾. 동사 break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주로 단단한 대상을 ‘깨’거나, ‘부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물체의 파괴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깨트리는 의미로 확대 되어 쓰인다.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일이 깨지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끊어져 중단하는 것을 나타내고, break가 규칙 등을 깰 때는 어김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표 2>는 break의 의미 범주와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목적어의 수와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동사 break의 의미 범주별 목적어 연어 수 및 빈도

동사	의미범주	목적어 연어의 수(128개)
break	파괴	91(71.1%)
	중지	21(16.4%)
	어김	16(12.5%)

코퍼스 자료에서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목적어의 어휘는 총 128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break에서 빈도수가 가장

35) 정희란(2019)에서는 ‘break’와 ‘깨다’의 의의(sense)로, ‘파괴하다’와 ‘중지하다’, 그리고 ‘어기다’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break’와 ‘깨다’의 의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 별 동사의 의미 유형과 목적어 연어에 따른 영어 동사 break의 한국어 대응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때문에, 의의 대신 의미 범주로 나타낸다.

높은 의미 범주는 ‘파괴’로 나타났으며, 전체에서 71.1%의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명사 목적어는 break와 쓰일 경우 대상을 파괴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괴’의 의미 범주에 대해서는 break의 의미 유형을 세분화하여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break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파괴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코퍼스에 나타난 예문을 통해서 의미 범주에 대해 살펴보자.

1) 파괴

break의 의미 범주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대상을 깨트리는 것이다. 코퍼스 자료에서 break와 함께 쓰인 목적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동사 break는 어떠한 대상을 깨거나 부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다. break가 파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목적어 연어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3) a. No word yet on when the museum plans to break ground, or when they plan to open..
b. “He's conscious. I think he broke bones, [...]”³⁶⁾
c. It was a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my students.
d. Tomorrow he would need to break camp and move the sheep farther uphill, a good four miles.
e. [...] and Afghan units had broken this pattern and [...]

36) 예문은 코퍼스에서 ‘break’와 목적어가 쓰인 문장을 발췌하였고, 앞뒤에 생략한 문장은 [...] 로 표시하였다.

(13)의 예문은 모두 ‘파괴’의 범주에 속하며, break는 목적어를 파손시키는 의미가 있다. (13a)에서 깨지는 것은 땅의 표면이 갈라져 깨진다.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바닥은 깨져서 표면을 연속성을 상실하여 파괴된다. (13b)에서는 ‘뺨’이 break된다는 것을 골절을 의미한다. (13c)에서는 단단한 ‘얼음’이 깨진 것이다.³⁷⁾ (13d)와 (13e)의 목적어, ‘캠프’와 ‘패턴’과 함께 쓰인 break도 각 각 대상을 파괴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13d)는 야영하며 지내던 곳, ‘캠프’를 깨트려 헐어 버렸으며, (13e)는 정형화된 ‘패턴’을 깨트려 파괴한 것이다. 이처럼, 동사 break는 기본적으로 온전했던 상태가 깨어지는 변화를 겪어서 파괴됨을 나타낸다. ‘파괴’의 범주에 해당하는 예문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14) a. They broke the news that he had talked with Ambassador [...]
 b. Now that he has broken that barrier, it's about overcoming his own.
 c. They broke the codes of the German Enigma cipher device and [...]
 d. She broke the world record.
 e. [...] it's hard to see how we break this logjam. And it's not just the government shutdown.

위의 예문 (14a)에서 깨지는 것은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뉴스’이다. 어떤

37) ‘break the ice’는 모임이나 회의 등에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타동사 break의 목적어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 의미, 즉 ‘얼음’로 해석한다.

소식을 마치 물건처럼 깨트린다는 것은 물건을 담고 있는 용기가 깨져, 내용물이 퍼져 나오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break하는 것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닌, 어떤 힘든 사태를 깨트리고, 난관을 돌파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14b)에서 깨지는 것은 앞을 가로 막는 ‘장벽’이며, 그러한 벽을 쳐부숴 깨트려 버리는 것이고, (14c)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방해가 되는 독일의 ‘암호’ 또한, 깨부셔야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14d)의 세계 ‘기록’도 단단한 물건처럼 깰 수 있으며 (14e)에서는 일이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을 부수고 빠져 나오는 것을 break로 나타내고 있다.

2) 중지

다음은 ‘중지’의 범주에 대해 알아보자. 타동사 break의 대상이 어떤 상태를 깨는 것은 그 상태가 중간에 끊어져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코퍼스의 전체 목적어 연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범주이다. 코퍼스에 나타난 ‘중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5) a. Javion finally broke the silence. "We gave you an extension, [...]
- b. [...] this would break the connec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uerrillas.
- c. But I'm sure you need to break the filibuster or go to 60 votes or whatever. [...]

(15a)에서는 동사 break를 통해 주어가 마침내 ‘침묵’하던 행위를 그만두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15b)에서 계속 이어져 오던, 어떤 ‘민

죽'과 '게릴라'의 관계가 break 되었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중간에 끊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15c)에서는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그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는 의미로 'break'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동사 break는 '중지'의 의미 범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김

목적어 언어에서 '어김'의 범주는 다른 범주에 비해 제일 낮게 나타났다. 동사 break는 '약속'이나, '법', 그리고 '규칙'등을 위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어김'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자.

- (16) a. If you break rules, you will be disqualified.
b. Thomas broke their engagement and left her a few years later.
c. [...] he probably broke the law by lying in front of Congress.
d. In an episode where Robb Stark breaks his vow and marries Talis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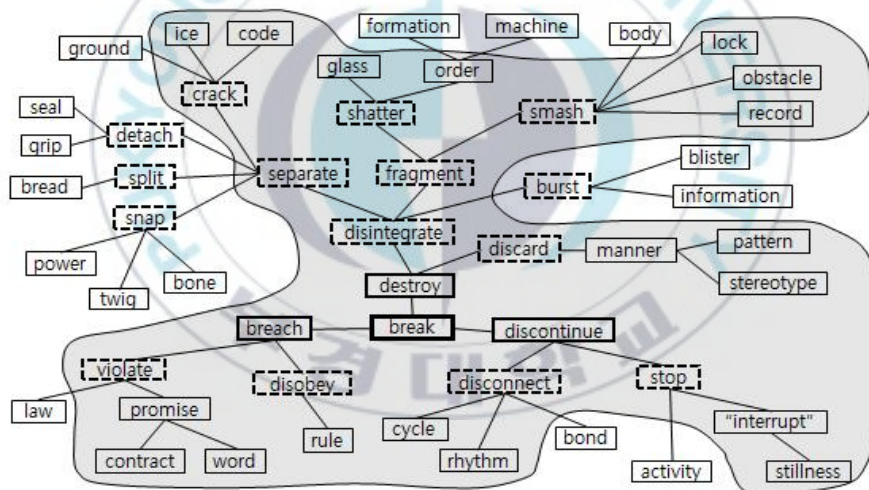
위의 예문에서 break는 모두 위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6a)에서는 '규칙' 또는 '규정'을, (16b)에서는 결혼하겠다는 쌍방의 약속인 '약혼'을 깬 것이고, (16c)는 '법'을 그리고, 마지막 (16d)에서 깨지는 것은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맹세'이다. 이렇게 서로의 합의된 규칙이나 약속을 깨는 것을 어긴다는 의미를 break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1.2 break의 의미 지도

다음은 앞서 살펴본, 어휘 유형론적 접근 방법을 응용하여 break의 의미 지도를 제시한다. 또한, break가 ‘깨다’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명사 목적어에 대한 내적 범주³⁸⁾를 의미지도에 나타냈다.

아래의 <그림 7>은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바탕으로 완성한 break의 의미 지도이다.

<그림 7> 의미 유형에 따른 ‘break’의 의미 지도



<그림 7>은 각 범주 내에서, 코퍼스에 추출한 목적어 연어를 바탕으로,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여,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목적어를 연결한 언어 외적 기준 연결망을 보여준다. 또한, 동사 break가 목적어 연

38) 그림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을 말하며, 영어 동사 break가 ‘깨다’로 주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어와 결합할 때 한국어 대응 표현 중에 주로 ‘깨다’로 대응되는 부분³⁹⁾과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되는 부분에 대한 언어 내적 범주화로 나타낸 것이다⁴⁰⁾.

위의 의미 지도에서, 모든 범주는 두 가지의 의미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유형론적 관점에서는 한국어 대응 표현을 하나로만 설정하였다. 즉, 한국어 대응 표현을 동사 ‘깨다’로 한정하여, 영어 동사 break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의의를 ‘destroy’에 서는 네 가지, ‘disintegrate, hurt, beat, discard’로 소분류해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파괴’의 의미 유형을 ‘disintegrate’와 ‘discard’,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중지’는 ‘disconnect’와 ‘stop’으로 나누었으며, ‘어김’은 한국어 의의에서만 나타나는 의의인, ‘nullify’ 대신, ‘disobey’로 의미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였다. 범주 별로 break의 의미 유형과 명사 목적어 연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미 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1) destroy

먼저, ‘destroy’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대상이 파괴되어 해체되는 ‘disintegrate’와 기존의 가치 체계나 사고방식을 깨서 없애버리는 ‘discard’이다. 먼저, ‘disintegrate’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disintegrate’는 다시, 파편의 수가 아주 많은 ‘fragment’와, 대상이 주로 반으로 분리되는 ‘separate’ 그리고, 깨질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드러나는 ‘burst’로 나뉜다.

‘fragment’부터 살펴보자. ‘fragment’는 ‘separate’와 달리, 여러 개의

39) 그림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40) 본 논문, 2.2.2.1에서 언어 외적 연결망과 언어 내적 범주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각으로 흩어진다. ‘fragment’는 다시 파괴되는 강도와 들이는 노력에 따라, ‘shatter’와 ‘smash’로 분류된다. ‘shatter’는 치거나 떨어뜨려 깨져 조각이 나는 것이라면, ‘smash’는 ‘shatter’에 비해 부서지는 대상은 더 단단하다, 따라서 깨지는 충격도 훨씬 세다. 하지만, ‘shatter’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진 대상인, ‘glass’와 일정한 순서나 질서를 나타내는 ‘order’의 대상이 이에 속하며, ‘order’는 다시 외형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formation’과, 기계 장치의 배열을 나타내는 ‘machine’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들이 주로 함께 쓰인다. 이에 반해, ‘smash’의 대상은 신체, ‘body’가 있으며, ‘heart’와 턱 ‘jaw’등의 목적어 연어가 나타났으며, ‘lock’은 여러 번의 동작으로 파괴되는 대상들이다. ‘죽쇄’나 ‘명에’와 ‘수갑’같은 것을 포함하는 ‘shackle’이나,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을 나타내는 ‘deadlock’ 그리고, ‘bank’ 등의 연어가 있으며, 모두 파괴할 때, 많은 힘과 깨는 동작에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다. ‘obstacle’는 가로막고 있는 힘든 장애물을 나타낸다. 장벽처럼 막아서고 있는 장벽이나 바리케이드 등을 포함하는 ‘barrier’와 ‘siege’ 등의 어휘가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smash’되는 대상은, 세계 신기록 같은 경기 기록인, ‘record’이다. 운동 경기에서 기록을 깬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깨는데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separate’이다. ‘separate’는 분리되는 모양이나 대상의 성질에 따라, 긴 모양의 수직적인 대상이 두 개로 꺾이는 ‘snap’과 평면적인 형태가 분리되는 ‘split’, 그리고, 들러붙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는 ‘detach’와,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것에 금을 내어 깨는 ‘crack’으로 이어진다. ‘snap’의 목적어 연어는 나뭇가지 ‘twig’와 다리뼈처럼 긴 모양의 뼈, ‘bone’과 의지나 정신력과 같은 힘을 나타내는 ‘power’로 이어진다. ‘power’의 대상은 주로 심리적인 힘이나 압력을 나타내며, 목적어

연어로는 ‘mustang’이 있으며, 야생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말의 ‘기’를 꺾는 의미를 나타낸다. ‘split’의 대상 ‘bread’이며, 두 쪽으로 나누는 의미이다. ‘detach’는 밀봉하기 위해 쓰는 봉인 ‘seal’과 사람이 무언가에 세게 쥐고 있는 ‘grip’으로 나뉜다. ‘crack’은 금이 가서 깨지는 얼음, ‘ice’와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져 있는 암호, ‘code’와 땅바닥인 ‘ground’로 이어진다. 이렇게 각 의미 유형에서 대상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⁴¹⁾.

‘disintegrate’의 마지막 의미 유형은 ‘burst’이다. ‘burst’의 대상은 파괴되었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주로 풍선처럼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burst’의 대상은 상처로 생긴 물집, ‘blister’와 추상적인 형태로 확대되어, ‘뉴스’나 ‘비밀’과 같은 감춰진 정보가 터져 드러나는 ‘information’으로 이어진다.

‘destroy’의 두 번째, 의미 유형은 ‘discard’이다. ‘파괴’의 범주에서 ‘discard’의 의미 유형은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타파하여 없애는 것이다. ‘disintegrate’와 차이점은 주로, 구체적인 대상을 파괴한다면, ‘discard’의 대상은 추상적인 형태이며, 기존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manner’이다. 즉, 오랫동안 고수해오면 굳어 버린 전통적인 관습이나, ‘습관’과 같은 일정한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pattern’과 고정된 사고방식인 ‘stereotype’등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와 주로 결합한다. 이러한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깨거나 부숴 해오던 방식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이다.

2) discontinue

41) 김명숙(1992: 70-71)은 어휘가 동사가 규정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영역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공간 영역의 개념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discontinue’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지속되어 오던 것이 끊기는 ‘disconnect’와 활동이 중단되는 ‘stop’과 방해 받아 상황이 중단되는 “interrupt”⁴²⁾이다.

먼저, ‘disconnect’의 대상은 계속 이어져 오던 것들이 중간에 끊어져 중지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리듬, ‘rhythm’, 그리고, 주기나 순환을 나타내는 ‘cycle’과, 지속해오던 관계인, ‘bond’와 연결된다. ‘stop’의 대상은 행위나 활동이 중지거나 멈춰지는 것인, ‘activity’로 이어지고, ‘interrupt’는 방해 받아 중단되는 것을 나타내며, 주로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stillness’와 연결된다.

3) breach

‘breach’의 의미 유형은 위반을 나타내는 ‘violate’와 복종하지 않고 지시나 규칙을 거스르는 ‘disobey’로 구분된다. ‘violate’는 다시, 공적이고, 강제성이 강한, ‘law’와 약속인 ‘promise’로 나뉜다. ‘promise’는 다시, 말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word’와 상업적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계약인 ‘contract’로 분류된다. ‘disobey’는 주로 규정이나 규칙인 ‘rule’로 이어진다. ‘rule’은 조직이나 종교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말한다.

지금까지, break의 의미지도에 나타난 언어 외적 기준연결망을 통해 서로 연관된 의미 유형이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의미지도를 통해 나타난 의미 유형에 대해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2) “interrupt”를 “ ”로 표시한 이유는 첫 번째 분류된 의미 유형인, ‘stop’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며, ‘stop’의 의미 안에서 다시 ‘interrupt’의 의미로 나뉘는 것을 나타낸다.

3.2 break의 의미 유형

break의 의미 범주는 크게 ‘파괴’, ‘중지’, 그리고, ‘어김’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각 의미 범주에서 코퍼스의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범주 내에서 동사의 의미를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break의 의미 유형에 대해서, ‘파괴’와 ‘중지’ 그리고 ‘어김’의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2.1 ‘파괴’의 의미 유형

‘파괴’의 의미범주에서 break는 두 가지의 의미 유형 즉, ‘disintegrate’, ‘discard’로 구분된다. ‘disintegrate’는 다시 파괴되는 조각의 수나, 모양에 따라, ‘fragment’와 ‘separate’ 그리고, ‘burst’로 나뉘고, ‘discard’의 대상은 ‘manner’에서 ‘pattern’과 ‘stereotype’으로 다시 분류된다. 다음은 범주에서 세분화된 break의 의미 유형을 코퍼스에 나타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2.1.1 disintegrate

‘파괴’의 의미 범주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 유형인 ‘disintegrate’는 대상을 분리하거나, 분해, 또는 파열하여 해체시키는 것이다. ‘disintegrate’는 파괴될 때, 생기는 조각의 수에 따라,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산산이 부서지는 경우는 ‘fragment’로, 주로 반으로 나뉠 때는 ‘separate’로 구분된다. 또한, 해체되지만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는 ‘burst’로 나뉜다. 각 각의 의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fragment’와 ‘separate’ 그리고, ‘burst’의 순으로 살펴보자.

1) fragment

‘fragment’는 대상이 파괴될 때,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separate’보다 조각의 수가 훨씬 많다. 이는 깨어지는 대상의 속성 때문일 수도 있고, 파괴하기 위해서 가하는 충격의 강도가 너무 세거나, 부수거나 깨는 동작이 여러 차례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쉽게 부서지는 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shatter’로 분류되고, 파괴의 강도가 강하거나, 깨기에 쉽지 않은 것은 ‘smash’로 구분된다. 먼저 ‘shatter’의 의미에 속하는 break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 (17) a. "In case of emergency, break glass."
- b. After just a few casualties on each side, the state troops broke ranks and fled, [...]
- d. The stupid buggy had hit a rock and broken an axle, [...]

‘shatter’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17a)의 ‘유리’가 break 되면, 조각들이 깨져 산산이 흩어지게 된다. 산산이 조각나 부서지는 대상은 ‘유리’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17b)에서 ‘대열’을 깨는 것은 마치 ‘유리’가 깨져 조각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break는 질서있게 정렬

되어 있는 상태를 흔트려버린다. (17c)의 ‘차축’은 기계의 시스템으로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차의 균형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기계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가 깨져 버렸다는 것은 부서져 고장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예문은 ‘smash’의 의미 유형에 속한다.

(18) a. My youngest doesn't talk to me. And that breaks my heart.

b. You punched me! You broke my jaw!

(18a)에서 ‘심장’⁴³⁾ 파괴될 때도 영어 동사 break로 표현하여 몹시 괴로운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18b)에서 ‘턱’ 또는 ‘턱뼈’가 깨진 것은 break로 표현하여 부상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 있는 것은, ‘턱뼈’의 경우는 앞에 나온, ‘snap’의 유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snap’의 유형에 속하는 ‘뼈’들은 주로 수직으로 길게 생겼지만, ‘턱뼈’의 경우는 옆으로 퍼진 형태로 되어있다. 이런 경우는 ‘턱뼈’를 break했다는 것은 조각나 부서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다른 ‘smash’의 유형을 살펴보자.

(19) a. With considerable force, he was able to break the lock and open the door.

b. But most homeowners don't want to break the bank to doll up a place they're about to sell.

c. The figure many hoped would break the deadlock was the secretary-general.

43) heart는 한국어로는 ‘심장’보다는 ‘가슴’이나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신체의 일부로 표현하였다.

d. I broke my jinx this year.

‘smash’는 파괴의 강도가 아주 세다. 거의 대상이 박살 날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하고 이에 따라, 파편이 많이 생긴다. 깨거나 부술 때, 많이 힘이 필요한 이유는 목표물 자체가 아주 튼튼하여, 한 두 번의 동작으로는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다. (19a)에서 ‘자물쇠’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금을 내거나 꺾어서 깨지는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19b)의 ‘은행’에는 잠겨 있는 금고들이 있다. 이를 부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주어 깨부숴야한다. (19c)에서 ‘교착상태’는 일이 진행되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쳐부숴 깬다는 것은 그 상황이 해결되어 벗어난 것을 나타낸다. (19d)에서 ‘징크스’와 같은 액운에 의해 속박당하는 것을 깨부수고 벗어나는 것을 break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장애물로 인해 가로 막혀, 그것을 뚫고 넘어서는 의미를 나타낸다.

- (20) a. I want the guy to win, just — let's break that barrier.
b. "We need to break this siege. I'm going over the wall, and Sarto is coming with [...]"
c. To break the tension, I asked, What'd you do in Brazil?
d. Look what he did. He broke a record. It's been there 55 years.

(20a)의 ‘장벽’또는 ‘장애’를 깬다는 것은 힘이나 노력으로 격파시켜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벽이 허물어 질 정도의 힘이 요구된다. (20b)에서도 ‘포위’망을 break한다는 것은 뚫고 나아간다는 것이다. (20c)에서 ‘tension’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장애물이다. 긴장으로 인한 경직된 상황을 break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깨부수고 벗어나는 의미

로 풀이 될 수 있다. (20d)에서는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의미로 break를 사용하고 있다. 55년 만에 기록을 깼다는 것은 깨기 힘든 장애물을 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록’을 ‘break’했다는 것은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separate

‘separate’는 대상이 주로 반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긴 모양의 대상이 두 조각으로 꺾이는 ‘snap’과 반으로 쪼개지는 ‘split’, 그리고, 단단하게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분리되는 ‘detach’와 금이 생겨 깨지는 ‘crack’으로 분류된다. 다음 예문으로, 어떠한 목적어 연어와 어휘들과 함께 쓰이는지 살펴보자.

먼저, 아래의 예문을 통해 ‘crack’의 의미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21) a. Cece is thankfully there to break the ice.
 b. The university broke ground on the institute in 2008.
 c. And you want me to break the code?

(21a)의 ‘얼음’은 깨지게 되면 표면에 금이 가서 갈라진다⁴⁴⁾. 단단한 ‘얼음’을 깬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어색함을 깬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21b)에서 ‘땅바닥’을 break 한다는 것은 표면을 깨고 바닥을 갈아엎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때 땅을 파괴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로 쓰인다. 또

44) 만약 ‘얼음’의 두께가 얇거나, 파괴되는 방법, 즉, 던지거나 심한 충격을 주는 경우라면, ‘crack’이 아니라, ‘shatter’나, ‘smash’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서먹함에 비유되는 ‘ice’가 깨져 흩어지거나, 강한 충격을 주어서 파괴하는 것 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틈(금)을 내어 분위기를 깨는 것으로 보았다. ‘separate’나 ‘fragment’의 유형 분류는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한, (21c)에서, 일반적으로 ‘암호’는 남들이 알지 못하게 숨겨진 정보이다. 이러한 비밀스런 내용은 단단한 껍질에 싸여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단단하게 감싸여져 있는 표면에 금을 내어 깨는 것을 나타내며, ‘암호’가 break됐다는 것은 풀렸다는 의미이다. 계속해서 다음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자.

- (22) a. His mission was to break branches.
 b. I broke my leg two days before marathon.
 c. “Girl, I’ve broken more mustangs than you’ve counted years,” he snapped.

위의 예문 (22a)에서 기다란 형태를 가진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는 영어에서 break로 나타낸다. 이 때 break는 대상이 많은 조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긴 것을 반으로 꺾어 분리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22b)에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것을 표현하면, break는 뼈가 골절됨을 나타낸다. 주로, 나뭇가지나 뼈처럼 길고 단단한 대상이 깨질 때, 영어로는 break를 쓸 수 있고, 가지가 꺾기거나, 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의지나 기처럼 곳곳한 정신력을 무너뜨릴 때도 쓰일 수 있다. 김명숙(1992: 71)은 저항하는 힘을 선으로 표시하고 꺾일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c)에서 ‘야생마’를 break한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말의 정신적인 힘을 꺾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동(1995: 139)에서도, break는 ‘정신, 의지, 결의, 저항’도 온전한 하나의 개체로 보고, 꺾일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separate’의 다른 의미 유형인 ‘split’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23) She broke bread and gave him half, and [...]

(23)에서 ‘빵’은 깨지거나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break로 표현하여 빵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나누는 의미로 쓰인다. 동사 break는 딱딱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온전한 대상을 반으로 파괴할 때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아래의 예문에서 break는 단단하게 붙어있는 것을 뜯어내 분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24) a. Then he breaks the seal and unfolds the first dispatch, [...]

b. "Help!" Anne yelled, trying to break his grip.

동사 break는 겉 표면이 단단하지 않아도, 깨트릴 수 있다. (24a)의 ‘봉인’처럼, 표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붙어있는 것을 뜯어 낼 때도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는 확대되어, (24b)에서 누군가의 손아귀에 붙잡혀져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break는 그러한 움아멤 즉, 손을 떼어내고 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45) 김명숙(1992: 66)은 break의 목적어로 쓰인 구체적인 대상의 성격을 정의하면서, 분리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구체물도 포함시켰다.

- a. 단단한 성질
- b. 부서지기 쉬운 성질
- c. 상태 변화 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 d. 분리 가능한 성질

3) burst

‘burst’의 대상은 둥근 형태로 부풀어진 상태이다. 이 때, 터지는 대상의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다면, 파괴될 때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Nay(1990)는 break의 1차 의미를 ‘shatter’, ‘snap’, ‘burst’로 분류하고, ‘burst’의 자질을 [+FRAGIBLE]과 [+ROTUND]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⁴⁶⁾. 예문을 통해 ‘burst’의 의미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25) a. Do not break blisters.
b. And then I broke the news to him⁴⁷⁾.
c. [...] that you will only break confidentiality to her parents (or others) [...]

영어 동사 break는 겉 표면이 단단하지 않아도, 깨트릴 수 있다. (25a)에서 깨지는 대상은 ‘물집’이다. 살갗에 물이 차올라 부풀어 오른(+ROTUND) 상태를 터트려 깰 때, 영어에서는 break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영역에서 파열된 것은 추상적인 영역으로 넓혀질 수 있다.

46) Nay(1990)은 동사 break의 의미를 1차, 2차, 3차 의미로 나누고, 1차는 가장 원형적인 의미에 가깝고, 2차, 3차는 파생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은 Nay의 의미 분류이다.

- a. 1차 의미(primary meaning): shatter, snap, burst
b. 2차 의미(secondary meaning): tear off, open, loosen, destroy, abrogate, (cause) to be inoperable, (off)stop, (down)destroy, (down)disassemble
b. 3차 의미(tertiary): roil, (down)be inoperable, start, change

47) 코퍼스에 나온 예문은 대부분 ‘breaking news(속보)’처럼 복합 명사의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타났다. 위의 예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동사와 함께 사용된 문장을 코퍼스에서 다시 찾아 사용하였다.

‘뉴스’나 ‘비밀’같은 ‘information’의 대상이 터져 드러나는 경우로 확대될 수 있다. (25b,c)에서 ‘뉴스’나 ‘비밀’같이 감춰진 내용을 깨트린다는 것은 ‘뉴스’를 터트려 소식을 전해 주는 것으로 쓰인다. ‘기밀’이 깨지는 것은 파괴되어 숨겨졌던 이야기를 드러내어 누설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 ‘파괴’의 범주에서, ‘disintegrate’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separate’와 ‘fragment’ 그리고, ‘burst’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파괴’의 범주에 속하는 다른 의미 유형인 ‘discard’에는 어떤 예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3.2.1.2 discard

‘discard’은 기존의 사고 또는 행동 방식, ‘manner’를 파괴하여 없애버리는 것이다. ‘disintegrate’의 대상이 주로 구체물이라면 ‘discard’는 추상적인 대상을 타파하여 없애버리는 것이다. 오랫동안 고수해서 굳은 사고 방식이이나, 관습, 전통, 제도 등을 깨부숴버리는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어떠한 예문들이 있는지 보자.

- (26) a. We want to break that taboo by talking about the topic and also [...]
- b. Filmmakers can break stereotypes around the world by turning [...]
- c. Luckily, it is never too late to break bad habits and begin to rejuvenate skin.

break가 파괴하는 대상은 단단한 물건 뿐 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오랜 시간 일정한 범위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26a)의 ‘전통’이나, ‘금기’는 오랜 동안 한 사회가 믿고 있는 가치관으로서 깨기가 쉽지 않다. 그 구성원들이 굳게 또는 확고하게 지켜져 온 집단의 오래된 관습이 파괴할 때, 마치 물건을 깨듯, break을 쓸 수 있다. 사고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26b)의 ‘고정관념’도 전통처럼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바꾸기 힘든 생각을 파괴하는 것도 break로 표현되며, 이때의 break는 기존의 틀을 깨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6c)의 ‘습관’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서 굳어진 것들이다. 영어에서는 이런 습관적인 행위를 깨는 것을 break로 표현할 수 있으며, ‘discard’는 기존의 가치나, 풍습, 특히 나쁜 악습을 타파하여 없애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파괴’의 범주에서, ‘disintegrate’와 ‘discard’의 의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disintegrate’는 깨어지는 모양이나 파편의 형태에 따라, ‘fragment’와 ‘separate’ 그리고, ‘burst’로 나뉘고, 각 각의 의미 유형은 구체적인 형태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사용될 수 있다. ‘파괴’의 또 다른 유형인 ‘discard’는 ‘disintegrate’와 달리, 주로 추상적인 대상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3.2.2 ‘중지’의 의미 유형

‘중지’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 유형은 ‘disconnect’와 ‘stop’ 그리고 세 가지로 나뉜다. ‘중지’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오던 상황이 깨져 중단되는 의미로 쓰인다. 이기동(1995: 137)은 단단한 개체가 깨져 상태가 변화는 것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과정이나 흐름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연속된

상태를 깬다는 것은 그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각 각의 의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3.2.2.1 disconnect

‘disconnect’의 의미 유형에는 대상과 대상이 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관계나 반복해서 진행된 흐름과 관련이 있다. 예문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 (27) a. And I can't break the cycle.
b. [...] we might break the connection for good.

위의 예문 (27a)에서 동사 break의 목적어로 쓰인, ‘cycle’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흐름을 의미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이 깨지는 것은 중단됨을 나타내고, 이 때, break는 끊어짐을 나타낸다. (27b)의 ‘관계’나 ‘연결’ 또는 계속해서 이어져 연결된 것들이 깨진다는 것을 이어져 오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break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stop’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자.

3.2.2.2 stop

‘stop’은 지속해서 행해오던 일련의 활동이나 움직임, 그리고 정적인 분위기가 멈춰지고,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예문을 통해 어떤 목적어 연어와

어울릴 때, 동사 break가 ‘stop’의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 (28) a. [...] but it takes 60 votes to break a filibuster, [...]
b. [...] but she doesn't break stride in her conversation.
c. From Monday to Thursday we sang to break the monotony; on Friday we sang to celebrate.

(28a)에서 연설을 오래하는 행동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깬다는 것은 지속적인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 동사 break는 계속 이어져 일어나는 움직임을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이다. (28b)는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break’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 때, 행위를 깨는 것은 걸음을 중간에 멈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8b)에서, ‘단조로움’을 깬다는 것은 변화가 없이 단순한 상황을 중단시켰다는 의미이다.

‘stop’의 의미 유형에서 break는 대부분 중단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때로는 방해나 훼방을 받아 지속해 오던 흐름이 중단될 수도 있다. 아래의 예문 (29a)의 경우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의 방해로 인하여 집중하고 있던 행위가 깨져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29b)의 경우는 그녀가 몰두하던 동작을 스스로, 중지한다는 것을 break로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29) a. Shouting outside broke his concentration.
b. She almost didn't answer it, she didn't want to break her concentration, [...]

‘stop’의 의미로 쓰인 break는 함께 쓰이는 목적어 연어가 주로 ‘정적’과 같은 조용한 분위기에 해당하는 어휘나, ‘몽상’과 같이 생각이나 정신이 어디에 빠져 있는 어휘가 나타날 경우는 방해 받아 중지되는 것이다. 주로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상황과, 어떤 생각에 빠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이 조용하거나 단조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 다음의 예문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자.

(30) a. The buzzing of my cellphone broke my reverie.

b. Only the approaching noise of the engine had broken the stillness.

(30a)에서 갑자기 핸드폰의 소리로 인하여 ‘몽상’이 깨진다는 것은 방해 받아 멈춰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30b)의 ‘정적’도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조용했던 분위가 깨져 중단되는 것을 break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으로, ‘중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았다. ‘중지’는 계속 이어져 오던 관계나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상황이 중간에 끊어지는 ‘disconnect’와 행위나 움직임 그리고 활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주변의 분위기 등이 깨져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stop’의 의미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stop’의 경우는 방해받아 중지되는 경우는 ‘interrupt’되는 경우를 포함된다. 이 때 영어 동사 break는 조용했던 분위기가 방해받아 중간에 멈추거나, 연속적인 관계와 움직임, 그리고 흐름이 끊어져 중지되는 것을 나타낸다.

3.2.3 ‘어김’의 의미 유형

break가 약속이나 규칙을 어긴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추상적인 의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기동(1995)은 어떤 장소에 철조망을 쳐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을 때, 철조망은 일종의 규칙이나 정해진 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부수는 행위는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대상을 깨는 행동이 규정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쓸 수 있다. ‘어김’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 유형은 ‘약속’, ‘법’ 등이 어겨지는 ‘violate’와 ‘규정’이나 ‘규율’등이 지켜지지 않는 ‘disobey’로 분류될 수 있다. ‘violate’와 ‘disobey’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자.

3.2.3.1 violate

‘violate’의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들은 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보다는 상대방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인 ‘promise’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과 명령을 나타내는 ‘law’로 구분된다. ‘promise’의 대상은 다시, 주로 말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word’와 사업상의 거래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contract’로 나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31) a. Pawlenty faced a tough reelection fight after he broke a pledge not to raise taxes.
b. If you do break the lease, you could owe rent until the end of the lease term.

c. We know that she broke the law.

d. If a player breaks curfew, he is sent home.

예문 (31a, b)처럼 break는 ‘약속’이나, ‘임대 계약’ 등을 위반한 의미로 쓰인다. (31a)에서는 정치인 대중들을 상대로 맹세한 ‘공약’을 어긴 것을 break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1b)에서 깨지는 것은 ‘임대계약’이다. 계약은 사람이나 조직체가 서로 지키겠다고 합의한 약속인데, break한다는 것은 어겼다는 의미가 된다. 마찬가지로, (31c,d)에서는 각 각 ‘법’과 지켜야할 명령인 ‘통행금지령’을 위반하는 것을 break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약속’이나 ‘법’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와 결합된 break는 어김 즉, ‘어김’의 의미로 쓰인다.

3.2.3.2 disobey

‘violate’가 ‘법’이나 ‘약속’등을 위반하는 의미라면, ‘disobey’는 규칙의 것을 준수하지 않고, 거역하는 의미이다⁴⁸⁾. ‘disobey’의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들은 주로 종교적으로 지켜야하는 행동 규칙이나 행사를 치를 때 정해진 예법 등이 포함된다.

(32) a. This image had royalists up in arms as Michelle Obama broke royal protocol by touching the queen.

48) ‘violate’와 ‘disobey’로 구분한 이유는 ‘disobey’는 ‘violate’처럼 위반의 의미가 있지만, ‘법’이나 ‘명령’과 같이 공적이고 강제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조직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violate’에 비해 강제성이 약할 때이다.

- b. [...] and in the bible it says if you've broken one commandment, you've broken them all.

예문 (32a)처럼 break는 왕실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인 ‘의례’를 break한다는 것은 행사의 절차위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거스른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2b)에서는 종교의 규정인 ‘계율’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다는 의미를 break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퍼스에서 추출한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파괴’, ‘중지’, ‘어김’ 등 세 가지의 의미 범주를 가진 break를 바탕으로 개별 범주마다, 명사 목적어 연어에 따라, 의미 유형으로 다시 나누었다. ‘파괴’의 의미 유형은 ‘disintegrate’와 ‘discard’로 분류되며, ‘disintegrate’는 파괴되는 파편의 수와 모양에 따라 다시, ‘fragment’, ‘separate’ 그리고 ‘burst’로 나뉘었다. ‘discard’의 대상은 오랫동안 굳어진 방식, ‘manner’이며, 가치관이나 관습 등을 나타내는 어휘와 정형화된 패턴을 나타내는 목적어 연어들과 함께 쓰일 경우에 나타나는 의미 유형이다. ‘중지’의 의미 범주에서는 ‘disconnect’와 ‘stop’등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어김’은 ‘약속’이나, ‘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위반하는 ‘violate’와 조직의 규율이나 지시등을 거스르는 ‘disobey’의 두 가지 의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류한 의미 유형을 가지고, break가 각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명사 목적어 연어와 결합되었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IV. 목적어 연어에 따른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

본 장에서는 의미 유형에 따라 분류된 동사 break가 코퍼스에서 추출한 명사 목적어 연어와 결합했을 때, 한국어로 어떻게 대응되어 나타나는지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세 가지의 의미 범주를 바탕으로 break의 의미 유형을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동사의 의미 유형을 명사 목적어의 특징에 따라 상세 분류한 이유는 break는 다양한 목적어와 연어를 이루고, 목적에 따라 한국어 대응표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영어 동사 break가 목적어 연어에 따라 어떠한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1 ‘파괴’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

‘파괴’의 속하는 break의 의미 유형은 대상이 깨지거나 부서져 해체 되어 버려, 분해되거나, 분리되는 ‘disintegrate’와 파괴되어 없애버리는 ‘discard’로 구분된다. ‘disintegrate’는 다시, 파괴되는 조각에 따라, ‘fragment’와 ‘separate’ 그리고, 파열하여 터져 버리는 ‘burst’로 하위분류되고, ‘discard’는 대상이 파괴된 후, 파편이 생기거나, 나뉘는 것이 아니고, 깨트려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파괴’의 범주에 속하는 break의

의미 유형은 한국어에서는 ‘깨다’, ‘부수다’, ‘뚫다’, ‘타개하다’, ‘터트리다’, ‘부러트리다’, ‘꺾다’, ‘쪼개다’, ‘뜯다’ 등의 많은 다양한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나타난다. 각 각의 의미 유형별 한국어 대응표현에 대해 ‘깨다’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4.1.1 깨다

‘파괴’의 범주에서, ‘깨다’로 대응되는 대상은 깨지기 쉬운 단단한 물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등을 나타내는 목적어 연어들과 함께 쓰일 때이다. 한국어 사전에서 ‘깨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⁴⁹⁾. 첫째, 단단한 물체를 조각이 나게 부수다. 둘째, 기존의 생각이나 관습을 철저히 부인하여 유효성이나 영향력을 없는 상태로 만들다. 셋째, 넘기 어려운 장애를 넘어서거나 극복하다. 넷째, 지속되던 분위기나 상태를 급작스레 바꾸거나 변화시키다. 다섯 번째, 어떠한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어그러뜨리다. 여섯 번째, 일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다. 마지막으로 약속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서 그만두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 3>는 break가 ‘깨다’로 대응되는 대표적인 목적어 연어의 종류와 한국어 대응표현 및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49) 본 연구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때는 네이버 국어 사전(<https://ko.dict.naver.com>)에서 발췌하였으며,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연세대학교 언어 정보 연구원의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https://ilis.yonsei.ac.kr/dic>)을 참고하였다.

<표 3> 한국어 대응표현 ‘깨다’의 의미와 목적어 언어

의미	목적어 언어
① 단단한 물체를 파괴함	ice, glass, egg
② 어렵거나 좋지 않은 일을 극복함	barrier, record, code, jinx
③ 이미 이루어진 일의 유효성을 없앴	tradition, stereotype
④ 유지해온 상태와 분위기 방해함	rhythm, silence
⑤ 약속을 무효화시킴	rule, promise, lease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표현은 ‘깨다’ 또는 ‘깨트리다’이다.⁵⁰⁾ break가 ‘깨다’로 대응되는 경우의 목적어 언어는 먼저, ‘ice’이나, ‘glass’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단단한 물건이나, 어렵거나 좋지 않은 일, ‘jinx’ 그리고, ‘barrier’와 ‘record’등의 언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이며, 전통이나 관습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는 목적어언어와 어울릴 때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오던 상태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명사 언어와 쓰이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지켜야할 약속이나 계약 등에 해당하는 목적어 언어와 함께 쓰일 때 break는 ‘깨다’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가장 기본적인 ‘깨다’의 사전적 의미는 한 물체에 충격을 주어 부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또한, ‘전통’이나, ‘고정관념’처럼, 기존의 사고방

50) 한국어에서 ‘깨다’가 표현될 때는 ‘깨트리다’와 ‘깨(어)지다’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깨트리다’는 ‘깨다’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깨지다’는 ‘깨다’의 피동 표현인데, 여기서는 구별하여 쓰지 않는다.

식이나 가치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나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나 상태를 중간에 어긋나게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방해하여 멈추게 할 때도 한국어 ‘깨다’로 대응될 수 있으며, 계약이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도 ‘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break가 ‘깨다’로 대응되는 예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 단단한 물체의 파괴함

다음은 break가 ‘깨다’로 표현되는 경우를 예문⁵¹⁾을 통해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33) a. We broke the ice with a question about what we'd heard
was his favorite local fast [...]

b.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 들었던 것에 대해 질문하면서 어색
함을 깼다.

(34) a. I broke the vase while I was dusting.

b. 내가 먼지를 털다가 그 꽃병을 깼다. (옥스퍼드 영한사전)

(33)에서, 원래 의미는 ‘break the ice’는 ‘얼음을 깨다’이지만, ‘얼음’은

51) 영어 예문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관련 표현을 검색하여 나온 영한 번역 문장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목적어 언어의 영한 번역문이 없는 경우는 코퍼스에 나온 문장을 발췌하고 한국어 번역이 없기 때문에 필자가 번역하였다. 코퍼스의 한국어 번역은 번역하는 사람과 전체 문맥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완벽한 번역보다는, break의 한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는데 중점을 두었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하여 수정될 수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빗댄 표현이다.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break로 쓰지만, 한국어로 옮기면 ‘깨다’로 나타난다. (34)에서 ‘꽃병’은 주로 유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유리로 된 꽃병이 깨지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깎질 수 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물건들 파괴될 때는 ‘깨다’로 가장 많이 대응된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깨다’로 대응되는 경우에 사전에 나타난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파괴될 때 쓰이며, 영어의 ‘얼음’이나 ‘꽃병’은 단단한 고체로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깨다’로 대응된다. 계속해서, ‘깨다’로 대응되는 다른 목적어 유형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자.

2) 어려움과 나쁜 일을 극복함

(35) a. Subconsciously, they come to believe that only a superhero can possibly break a jinx with such power. Mere mortal players can't do the job.

b.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슈퍼히어로만이 징크스를 깰 수 있으며, 영웅처럼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평범한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있다.

(36) a. Then, without a word to break the spell, the young people turned away silently and the old man slowly closed door.

b. 이윽고, 마법을 깨트리는 말 한 마디도 없이 어린 친구들은 조용히 물러들 갔고 노인은 가만히 문을 닫았어요. (에듀타임즈)

‘깨다’로 해석될 때,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명사는 주로, 좋지 않은 일에 얽매인 상황을 나타내는 ‘spell’과 ‘jinx’ 등이 있다. 이러한 어휘와 함께 쓰일 때, break는 ‘깨다’로 대응된다. 김명숙(1992)은 동사 break를 목적어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여 영향동사라 하였으며, break와 같은 영향동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토박이의 의식 속에 목적어 어휘가 동사가 규정하는 속성을 지닌 개체로 인식되면 의미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⁵²⁾. 즉, 영어사전에서 break는 대상의 성질이 단단해야한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대상의 온전함이 파괴되어 분리되거나 분해되는 것을 break로 표현 된다⁵³⁾. 하지만, 한국어에서 ‘깨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파괴되는 개체의 속성은 단단하고 딱딱하며 굳어진 것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성질이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깨다’로 대응될 수 있으며, 단단함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적용된다. (35)의 ‘징크스’는 한국어로는 ‘불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계속되는 나쁜 운은 굳어져 단단한 것으로

52) 김명숙(1992: 63)은 영향동사의 의미확대 적용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한 언어의 토박이의 의식 속에, 동사의 목적어로 명시되는 어휘가 그 동사가 규정하는 속성들은 지닌 개체로 인식되는 경우에 의미 확대가 이루어진다.”

53) 영영사전에서 정의하는 동사 break의 첫 번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Collins Online Dictionary*: When an object breaks or when you break it, it suddenly separates into two or more pieces, often because it has been hit or dropped. (<https://www.collinsdictionary.com>)
- ②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if you break something, you make it separate into two or more pieces, for example by hitting it, dropping it, or bending it. (<https://www.ldoceonline.com>)
- ③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to (cause something to) separate suddenly or violently into two or more pieces, or to (cause something to) stop working by being damaged. (<https://dictionary.cambridge.org>)
- ④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to be damaged and separated into two or more parts , as a result of force; to damage something in this way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비유되고, 마치 물건처럼 깨부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깨다’로 표현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파괴하는 ‘깨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표현할 수 있다. (36)에서 ‘마법’은 제약을 받아 얽매져 있는 나쁜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깨버리는 것을 break로 나타내며, 한국어에서는 ‘깨다’, 또는 ‘깨트리다’로 대응된다. 아래의 예문에서 break와 결합하는 목적어 연어는 단단함이 어렵고 힘든 것에 비유되며 그것을 깨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인 경우들이다.

(37) a. Chisolm broke major barriers when she became the first black congresswoman in 1968.

b. Chisolm은 1968년 흑인 최초의 하원이 되면서, 그녀는 커다란 장벽을 깨다.

(38) a. In the subsequent world championships, Phelps broke five world records, five more than Thorpe broke.

b. 연이은 세계 대회에서, Phelps은 다섯 개의 세계 기록을 깨으며, 이는 Thorpe가 깼던 기록보다 다섯 개가 더 많다.

(39) a. Polish, French and British cryptanalysts broke the Enigma code early in the conflict, gathering valuable intelligence and hastening the Allied [...]

b. 전쟁 초기에,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인으로 구성된 암호독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모으고, 연합군들이 [...] 서두르면서, 수수께끼 같은 암호를 깨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다의어 동사에 속하는 ‘깨다’는 사전의 의미중에서 세 번째에 풀이된 것처럼, ‘사람이 넘기 어려운 장애를 넘어서거나 극복하고, 힘든 대상을 꺾고 이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7)에서 흑인이라는 불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에 당선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신분차별에 대한 장벽을 break 한다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깨다’로 대응되고, 넘기 힘든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의미이다. (38)의 ‘세계기록’은 깨기 쉬운 대상이 아니다. 수영에서 무려 5개의 세계 신기록은 충분히 어려운 도전 과제이며, 이를 영어에서는 break로 쓰고, 한국어에서는 ‘깨다’로 대응된다. 이때의 ‘깨다’는 좀 더 나아가,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경신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39)의 ‘암호’ 또한, 비밀스럽게 부호화 시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깨다’라고 표현될 때는 ‘암호’라는 대상을 딱딱한 껍질에 싸여있는 은유의 대상으로 취급한데서 비롯되고, 해결의 의미인 ‘풀다’는 ‘암호’를 마치 어려운 시험문제로 바라볼 수 도 있으며. break가 ‘code’와 연어가 될 때는 암호를 ‘해독하다’로 번역되기도 한다.

3) 이미 이루어진 일의 유효성을 없앴

(40) a. White dresses were made popular by Queen Victoria, who broke the tradition of royals marrying in silver.

b. 흰색 드레스는 은색을 입고 결혼하는 왕가의 전통을 깨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인기 있게 되었다. (타임즈코어)

(41) a. We expect that he will keep breaking stereotypes and overcoming obstacles and move onward and upward.

b. 우리는 그가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를 극복하여 향상과

진보의 길을 가기를 기대한다. (타임즈코어)

(40)에서 ‘전통’이란 옛날부터 전해져오던 틀에 박힌 관습이며, 이러한 전통을 파괴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 굳어진 패턴이다. 이렇게 단단하게 박혀버린 관습은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깨야할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41)의 ‘고정관념’도 기존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깨다’로 대응될 때, break의 의미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의 효력이 상실됨을 나타낸다. 또한, 유지해오던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파괴하는 것은 마치 고착되어 단단해져 버린 물건을 깨는 것과 같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한국어에서는 ‘깨다’로 대응된다.

4) 상태나 분위기 유지를 방해함

다음은 지속해 오던 상태가 파괴하는 되는 경우에 break가 ‘깨다’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42) a. You can ski left turns in junk and right turns on groomers and never break your rhythm.

b. 더러운 것이 쌓여있는 곳에서는 왼쪽으로 돌고, 눈 카트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스키를 타고, 절대로 리듬을 깨지마.

(43) a. But the cadets marched forward anyway. Soon the sounds of enemy cannons broke the stillness.

b. 하지만 사관학교 생도들은 앞으로 행진해 나갔다. 곧 적의 대포 소리가 정적을 꺾다.

한국어 동사 ‘깨다’에는 사전의 의미 중에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그러뜨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2)에서 ‘리듬’, 또한, 일정한 간격에 따라 되풀이 되는 흐름이다. 눈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갈 때, 규칙적인 흐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갑자기 break되는 것은 지속해 오던 흐름을 깨버린 것이다. (43)에서, 생도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잠잠하던 상태가 대포소리에 의해 멈춰버린다. 이렇게 고요한 상태를 방해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깨다’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깨다’는 대상을 파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위의 사전의 정의처럼, 물건이 아닌 어떤 계속 이어지던 상태가 중간에 어그러져 멈추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깨다’로 대응될 수 있다. 이처럼 break는 어떤 일이나 상태를 중단시키는 의미와 함께, 방해하여 어그러뜨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⁵⁴⁾. 한국어에서도, ‘깨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op’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목적어 연어와 결합할 때, 동사 break는 ‘깨다’ 또는 ‘깨트리다’로 대응되고, 중단되었다는 의미나, 방해받아 하는 일이 어긋나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5) 약속을 무효화시킴

마지막으로 break가 ‘깨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사전의 설명처럼 ‘깨다’에는 ‘사람이 약속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서 그만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break하는 것은 지켜야 할 약속 이다. 다음의 예

54) 영어동사 break는 대상을 분리, 분해하여 파괴하는 의미도 있지만, 연속되어 온 상황에 중간에 방해받아 멈추거나, 끝나는 의미를 나타낸다.

사전 정의: break something: to interrupt something so that it ends suddenly (*Oxford Learners Dictionary*)

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44) a. Call your landlord, let her know you're breaking your lease. Maybe if you give her plenty of advance notice, [...]

b.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임대계약을 깨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마, 네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지한다면, [...]

(45) a. The politician broke his oath not to raise taxes.

b. 그 정치인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꼈다.
(YBM 올인을 영한사전)

(44)의 부동산 계약과 같이 집주인이라는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약속인 ‘임대계약’이 파괴되는 것이며, 한국어에서도 ‘깨다’가 자연스럽다. (45)와 같이, ‘맹세’나, ‘서약’같은 다짐하는 약속이 중간에 어긋나는 경우는 ‘깨다’로 대응된다. 한국어 ‘깨다’에는 위반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예문을 통해 ‘깨다’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화자에게는 목적어 연어로 쓰이는 대상이 딱딱한 것 또는 굳어져 있어 단단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깨다’로 대응하여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나, 연속해 오던 일이 중간에 어긋날 때, 그리고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깨다’로 대응한다.

4.1.2 부수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부수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전에서 ‘부수다’는 사전에서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를 주로 사람이 두드리 깨서 조각이 여러 개 나타나거나, 만들어진 물건을 두드리거나 깨뜨려 형태를 없애고, 못 쓰게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부수다’에는 대상을 ‘두드리’ 파괴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어 동사 ‘두드리다’의 의미는 대상을 여러 치거나 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부수다’의 동작은 한 번 이상의 동작이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물체를 일부러 건드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break가 ‘부수다’로 대응되는 목적어 연어와 의미를 나타낸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한국어 대응표현 ‘부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① 여러 조각이 나게 깨트림	jaw
② 깨트려 못쓰게 함	window, lock

‘부수다’에는 대상을 ‘두드리’ 파괴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어 동사 ‘두드리다’의 의미는 대상을 여러 치거나 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부수다’의 동작은 한 번 이상의 동작이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물체를 일부러 건드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break와 함께 쓰일 경우에, 한국어로는 ‘부수다’로 대응되는 목적어 연어는 ‘lock’, ‘window’ 등이 함께 쓰인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부수다’의 한국어 대응표현에 대해 살펴보자.

1) 여러 조각이 나게 깨트림

(46) a. The punch broke my jaw.

b. 그 펀치에 내 턱이 부서졌다. (옥스퍼드 영한사전)

동사 break가 한국어에서 ‘부수다’로 대응 될 수 있는 경우는 (46)에 쓰인 ‘턱’을 파괴할 때, 한국어에서 ‘부수다’로 대응된다. ‘턱’이 충격으로 깨질 때, 턱뼈가 여러 조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⁵⁵⁾, ‘부수다’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2) 깨트려 못쓰게 함

(47) a. Despite our attempts to break it, the lock would not yield.

b. 그 자물쇠는 그것을 부수려는 우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았다. (옥스퍼드 영한사전)

(48) a. The kids playing baseball broke the window in my room.

b. 야구를 하던 아이들이 내 방의 창문을 부셨다. (NE능률)

55) 김명숙(1992)는 이를 활성지역(active zone)으로 설명하고 있다. 활성지역은 참여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코가 깨졌다’고 할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코뼈’이다.

(47)에서 ‘자물쇠’라는 장치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깨는 동작과 상당한 충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파괴할 때는 한 번의 파괴행위가 아닌 여러 번의 동작이 필요하고, 일부러 물건을 깨 부수고 못쓰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때, 한국어로는 ‘부수다’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예문 (48)에서, ‘창문’은 하나의 형체를 가진 물체이다. 이것을 아이들이 깨트려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파괴될 때, 한국어에서는 ‘부수다’로 대응한다. break가 한국어에서 ‘부수다’로 대응될 경우는 대상을 파괴할 때, 충격의 강도가 세거나, 대상 전체가 부서질 때이며, 그로 인해 파편의 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깨다’라는 표현 보다는 ‘부수다’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⁵⁶⁾.

4.1.3 뚫다

동사 break가 한국어 ‘뚫다’로 대응될 때 결합하는 목적어 언어와 ‘뚫

56) 김준기(2000)은 비슷한 한국어 예문을 들어, ‘깨다’와 ‘부수다’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a. ? 어젯밤 마을금고에 도둑이 들어 금고의 자물쇠를 깨고 돈을 털어 달아났다.
- b. 어젯밤 마을금고에 도둑이 들어 금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돈을 털어 달아났다. (김준기2000: 169)

‘깨다’와 ‘부수다’의 차이점은 파괴하는 동작의 횟수와 관계가 있으며, ‘부수다’가 ‘깨다’에 비해 많은 행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즉, ‘부수다’는 ‘깨다’에 비해 가격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이로 인해 생기의 파편의 수도 더 많다고 하였다.

다’로 대응될 때의 의미를 아래의 <표 5>에 표시하였다. 사전에서 한국어 ‘뚫다’로 표현되는 경우는 구멍을 내어 막힌 것을 통하게 하거나, 시련이나 난관 같은 장애물을 헤치고 극복할 때 쓸 수 있다. 먼저, 목적어 연어와 ‘뚫다’가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자.

<표 5> 한국어 대응 표현 ‘뚫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가로 막힌 것을 통과함	siege, blockade, cordon

영어 동사 break가 ‘뚫다’로 해석되는 경우에 함께 결합하는 목적어 연어에는 주로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break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가로막고 있는 대상을 돌파하여 통과하는 의미의 ‘뚫다’로 대응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뚫다’는 막힌 대상을 뚫고, 돌파하여 넘어가거나, 뚫어서, 가로막는 것을 허물어 버리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동사 break가 한국어 대응표현인 ‘뚫다’로 해석되는 경우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49) a. The riot broke a blockade.

b. 시위대는 봉쇄를 뚫었다. (YBM 올인을 영한사전)

(50) a. [...] "I think I know a way to break the siege and save the other commanders".

b. “저는 포위를 뚫고, 사령관들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49)에서 어떤 것을 오고 가지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상태인 ‘봉쇄’를 깨

는 것은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break는 한국어로는 ‘뚫다’로 대응한다. 한국어에서 ‘뚫다’는 사전에서 정의한 것처럼 막힌 것에 구멍을 내거나, 장애물을 넘어, 헤쳐 나가거나 난관을 물리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50)에서 주위가 가로 막혀 ‘포위’ 당했을 때 이를 깨트려 통과해 나갈 때, break는 한국어로 ‘뚫다’ 또는 ‘돌파하다’등으로 표현되며 break는 단단하게 가로 막힌 문이나 벽을 깨부수어 뚫고 지나가는 의미로 쓰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에 해당하는 어휘는 주로 ‘뚫다’로 대응되고, 가로막고 있는 대상을 돌파하여 넘어서는 의미로 쓰인다.

4.1.4 타개하다

‘타개하다’에서 ‘打開(타개)’의 의미는 ‘치고 때려(打)’서 즉, 깨부수어 막힌 것을 열어 놓는 것이다. 즉, 대상을 깨부수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은 <표 6>는 ‘타개하다’로 쓰이는 break의 목적어 연어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한국어 대응 표현 ‘타개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어렵거나 막혀 있는 상황을 해결함	deadlock, impasse

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착되어 있는 답답한 상황을 나타내는

‘deadlock’, ‘logjam’ 그리고 ‘stalemate’ 등과 함께 쓰일 경우, break는 주로 ‘타개하다’로 대응된다. 연어를 이루는 목적어의 의미들은 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회의 등에서 의견이나 결정 등이 교착되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해결하는 의미인 ‘타개하다’로 대응된다. 다음 예문으로 동사 break가 한국어 대응 표현 ‘타개하다’로 해석되는 예를 살펴보자.

(51) a. European agriculture ministers failed to break the deadlock over farm subsidies.

b. 유럽 국가들의 농림부 장관들이 농업 보조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타개하지 못했다. (옥스퍼드 영한사전)

(52) a. Negotiators were unable to break the impasse created by the union's new demands.

b. 협상자들은 노조의 새로운 요구로 빚어진 난국을 타개할 수 없었다. (YBM 올인올 영한사전)

예문 (51)에서 교착된 상황을 break한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깨트리고 풀어 헤쳐 해결하는 의미이다. 사전에서도 정의 했듯이, ‘타개하다’는 의미는 어렵거나 막혔던 일들이 해결되어 풀리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52)에서도, 또한, 어떤 것이 답보되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영어에서는 break로 표현하고, 한국어에서는 ‘타개하다’로 쓴다. 이처럼, break는 교착상태나 정체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와 쓰일 때, ‘타개하다’로 대응되고 난처한 상황을 깨부수고, 막힌 상황을 해결하여, 벗어나는 의미를 나타낸다.

4.1.5 파기하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한국어 대응표현 ‘파기하다’로 나타나는 목적어 연어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어에서 ‘파기하다’는 주로 계약이나 약속을 깨트려 취소하는 의미와, 보안이 필요한 사물을 찢어서 내버리는 것이다. 물건을 ‘찢는’다는 것은 주로 종이로 된 서류를 의미할 수 있다.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속이나 협의사항을 깨버릴 때는 ‘파기하다’로 표현한다. 아래의 <표 7>은 ‘파기하다’로 대응되는 동사 break의 목적어 연어들이다.

<표 7> 한국어 대응표현 ‘파기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문서로 된 약속이나 계약을 취소함	engagement

주로, 어김의 범주에 속하는 목적어 연어들과 함께 쓰일 경우, 동사 break는 한국어에서 ‘파기하다’로 대응된다. ‘파기하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약속을 무효화하여 취소하는 의미일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은 break가 ‘파기하다’로 대응되는 예들이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53) a. Korea broke its engagement with U.S.A.

b.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을 파기하였다. (YBM 올인을 영한사전)

‘파기(破棄)하다’에서 ‘파’의 한자 의미는 ‘깨트리고 부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파괴하여 없앤다는 의미이다. ‘파기하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사전

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계약’이나, ‘조약’ 그리고 ‘약속’의 어휘와 함께 쓰일 경우에 ‘파기하다’로 대응될 수 있다. ‘어김’의 범주에서 ‘파기하다’는 대상을 깨트린다는 의미는 주로 문서를 ‘찢어서’ 버린다는 의미가 강하다⁵⁷⁾. (53)에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은 서류로 서명한 약속을 찢어서 즉 깨서 무효화 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break가 약속이나 계약 등의 목적어 연어와 결합할 경우에 주로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깨다’와 ‘어기다’ 또는 ‘위반하다’가 주로 쓰이지만, 약속이나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 졌다고 간주하면, 한국어에서는 ‘파기하다’로 대응된다.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는 약속은 ‘파기하다’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파기하다’는 주로 깨뜨리고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증서를 버린다는 것을 ‘파기하다’가 가지고 있다.

4.1.6 터트리다

동사의 의미 유형에서 ‘burst’는 주로 한국어에서는 ‘터트리다’로 표현된다. 한국어에서 ‘터트리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마음속의 감정이나 말을 갑자기 드러내거나, 두 번째, 무언가에 압력을 가해서 대상을 파괴할 때 쓰는 표현이다. 또한, 예상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갑자기’ 드러나게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음의 <표 8>은 영어 동사 break가 ‘터트리다’로 표현되는 목적어 연어를 나타낸 것이다.

57) 사전에서 ‘파기하다’의 쓰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a. 문서를 파기하다.(네이버 국어 사전)
- b. 공무원들이 목은 서류를 파기해 버렸다.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표 8> 한국어 대응표현 ‘터트리다’의 의미와 목적어 언어

의미	목적어 언어
① 부풀어 있는 것을 깨트림	blister, yoke,
② 내용물을 갑자기 외부로 드러냄	news, confidentiality

동사 break는 목적어의 언어가 ‘blister’나 ‘yolk’ 일 때, ‘터트리다’로 대응된다. 목적어 언어로 쓰인 어휘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다. 즉, 모든 물체가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져 탕탕하게 부풀어져 있다. 이렇게 부풀어 진 것을 깨트릴 때나, 속에 있는 내용물을 외부로 갑자기 드러낼 때, break는 한국어로 ‘터트리다’로 나타난다. 영어 동사 break가 ‘터트리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아래의 예문으로 살펴보자.

1) 부푼 것을 깨트림

(54) a. Don't apply creams, lotions or ointments and don't break the blisters. Contact your doctor if the burn is larger than a quarter,

b. 크림이나 로션, 그리고 연고도 바르지 말고, 물집도 터트리 선 안됩니다. 데인 데가 더 커지면 그 때는 병원에 가세요.

break가 ‘터트리다’를 표현될 때는, 주로 둥근 형태로 부풀어 져 있는 상태가 깨질 때 대응되어 나타난다. (54)에서 ‘물집’은 피부가 상처를 입고, 안에 액체가 생겨 부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부푼 것이 파괴될 때는 ‘터지

다’나 ‘터뜨리다’ 등으로 나타낸다. 영어 동사 break는 대상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대상이 파괴할 때 쓰인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표면이 딱딱하지 않고 부풀어 있는 물체를 눌러서 깨거나 부술 때는 ‘터트리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2) 내용물을 갑자기 외부로 드러냄

(55) a. In 2011, journalists and others used social media to break news of a high-speed train crash in the eastern city of Wenzhou ...

b. 2011년에 기자들과 사람들은 Wenzhou 동쪽의 한 도시에서 고속 열차가 충돌했다는 뉴스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터트렸다.

(56) a. I play Russian roulette with Fate, knowing someday a therapist will break confidentiality and turn me in.

b. 나는 언젠가는 치료사 한 명이 기밀을 터트리고, 나를 고발할 것이란 걸 알면서도, Fate와 러시안룰렛을 한다.

‘터트리다’의 사전적 정의 중에는 갑자기 막혀있던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내거나, 사람이 마음속의 감정이나 말을 밖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55)에서 break가 ‘news’와 결합하면, ‘터트리다’ 표현되고, 때때로, ‘드러내다’의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무언가 단단하게 둘러싸여 안에 있는 내용물을 ‘break’하여 갑자기 드러낼 때는 ‘터트리다’가 한국어 대응으로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것 같다. 마찬가지로, (56)의 ‘기밀’이나 ‘비밀’과 함

게 쓰이면, 남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로 ‘터트리다’로 쓸 수 있다. 무언가를 터트린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4.1.7 부러트리다⁵⁸⁾

다음은 ‘파괴’의 의미 범주에서 break가 ‘부러트리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전에서 ‘부러트리다’는 대상을 반으로 구부려 파괴하거나, 단단한 물체를 두 동강이 낼 때 쓰이는 표현이며, 대상이 어딘가에 충돌하여 다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break가 ‘부러트리다’로 대응되는 목적어 연어와 의미를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한국어 대응표현 ‘부러트리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긴 형태의 단단한 대상을 두 개로 분리함	bone, leg, rib, twig

break가 ‘부러트리다’로 표현될 때는 신체에서 주로 뼈에 해당하는 표현이 많았고, 물건 중에서도 ‘twig’처럼 모양이 긴 단단한 형체를 가진 어휘와 결합하며, 주로, 긴 모양의 단단한 뼈나 물건이 손상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문을 통해서, break가 한국어로 ‘부러트리다’ 또는 ‘부러지다’로 대응하는 예를 살펴보자⁵⁹⁾.

58) ‘부러트리다’와 ‘부러뜨리다’는 동일한 표현이며 둘 다 바른 표기로 인정된다. 여기서는 ‘부러트리다’를 주로 쓴다.

(57) a. Once she broke a rib while she was racing but she didn't realize it until the race was over.

b. 한 때 그녀는 레이싱 도중 갈비뼈를 부러트리기도 했다.

(NE능률)

(58) a. After falling from a tree, the panda tries to break the branch of the tree out of anger.

b. 나무에서 떨어진 후, 그 팬더는 화가 나서 나뭇가지를 부러트리려고 한다. (에듀타임즈)

(57)의 ‘rib’처럼 기본적으로 뼈와 함께 쓰인 break는 ‘부러트리다’를 쓰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사전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러트리다’는 치거나 부딪쳐서 부러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즉, 사람의 갈비뼈가 그냥 부러지지 않고, 무언가에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러트리다’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부러트리다’와 ‘부러지다’는 뼈처럼 단단하거나 긴 물체가 꺾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며, ‘뼈’는 주로 긴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뼈’가 파괴될 때는 ‘부러지다’를 사용한다⁶⁰⁾. 마찬가지로, (58)처럼, ‘나뭇가지’처럼 길고 단단한

59) 본 연구에서는 타동사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타동사 형태의 ‘부러트리다’를 사용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부러지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의미로 분류하였다.

a. He broke his arm.

b. 그는 팔을 부러트렸다/그는 팔이 부러졌다.

60) ‘부러트리다’의 사전적 정의에는 길게 생긴 형태의 단단한 물체라고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러트리기 위해 꺾어야 하는 대상들의 주로 긴 모양을 하고 있다.

물체를 꺾어서 둘로 겹쳐 두 조각이 날 때도, ‘부러지다’로 대응된다.

4.1.8 꺾다

다음은 영어 동사 break가 ‘꺾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꺾다’를 사전에서는, “단단하면서, 길고 곧은 물체를 구부러 다시 펴지지 않게 하거나 아주 끊어지게 하는 것 또는, 얇은 물체를 구부러거나 굽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상을 휘어 부러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적어 연어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한국어 대응표현 ‘꺾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길고 얇은 대상을 두 조각으로 깨트림	branch, twig

break가 ‘꺾다’로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branch’와 ‘twig’ 같은 목적어 연어와 어울릴 때이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한국어 ‘꺾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59) a. Then he lurched toward the wood and, finding a sapling,

-
- a.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전선을 망가뜨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다.
 - b. 그는 밥을 먹은 후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이를 쭈셨다.
 - c. 상대방은 커다란 장미나무를 부러뜨리면서 고꾸라졌다.
 - d. 그는 지난번에 연탄광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져 팔을 부러뜨린 적이 있었다.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broke a twig from its trunk and sucked at the resin.

- b. 그는 비틀거리면서 나무쪽으로 갔다. 어린 묘목을 발견하고,
나뭇 가지를 꺾어 수액을 빨아마셨다.

(59)에서 ‘twig’가 파괴되고 분리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broke’로 쓰였다. 한국어에서 ‘나뭇가지’처럼 길고 얇은 물체를 구부려 끊을 때는 ‘꺾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꺾다’는 구부려 휘어지게도 하지만, 나무를 부러뜨리고 난 후, 완전히 분리된 상황도, ‘꺾다’로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 사전에서 ‘꺾다’는 물체를 구부려 펴지지 않게도 하지만, 완전히 분리하여 끊어지게 할 때도 쓸 수 있다. 이것은 ‘부러트리다’나 ‘부러지다’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신체의 뼈의 경우는 부딪쳐 다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주로 ‘부러트리다’나 ‘부러지다’로 쓰인다⁶¹⁾. ‘꺾다’는 긴 형태의 물체를 파괴할 때 사용된다.

4.1.9 쪼개다

한국어 사전에서 ‘쪼개다’는 의미는 어떤 대상을 둘 이상의 조각이 나게 깨트리거나 가르는 의미가 있다. 즉, 물건을 두 개 이상으로 깨트리 나눌 때 쓰는 표현이다. 다음의 <표 11>은 break가 한국어 대응표현 ‘쪼개다’의 의미와 함께 나타나는 목적어 연어를 나타냈었다.

61) 만약 신체의 일부를 ‘꺾다’라고 표현하면, “몸의 한 부분을 구부리거나 굽히”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김명숙(1992)은 break의 목적어 속성 중 하나로 “상태 변화 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사람의 몸이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 의미가 되어 이상한 의미가 된다.

<표 11> 한국어 대응표현 ‘쪼개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더 작은 조각으로 분리함	bread

영어 break가 ‘쪼개다’로 대응되는 목적어 연어는 ‘bread’이다. ‘쪼개다’는 대상을 파괴할 때, 쪼개진 조각을 다시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쪼개다’로 대응하는 영어 동사 break에 대해 살펴보자.

- (60) a. In a certain desert, they might break bread with a carpenter.
b. 사막 어딘가에서, 그들은 목수와 빵을 쪼꼈다.

두 개로 분리되는 한국어 표현 중에는 ‘쪼개다’가 있다. (60)에서 ‘bread’을 두 조각으로 break를 쓰는데, 이를 한국어로 표현할 경우에는 ‘쪼개다’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빵’을 두 조각으로 분리하여 나누었다는 의미가 되며, 이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한국어에서는 ‘빵’의 외형적 특성이 물렁물렁하며, 부드러운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깨거나 부수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쪼개다’로 쓸 수 있으며, 쪼개진 빵은 다시 더 양분할 수 있다.

4.1.10 뜯다

‘파괴’의 범주에서 break가 한국어 ‘뜯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뜯다’를 한국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붙거나 닫힌 것을 떼거나 찢거나 하다. 둘째, 구조물에서 일부나 각각의 요소를 따로 떨어지게 하다. 아래의 <표 12>는 ‘뜯다’로 나타나는 목적어 연어이다.

<표 12> 한국어 대응표현 ‘뜯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붙어있는 것을 떼어냄	seal

영어 동사 break가 ‘뜯다’로 대응하는 경우에 함께 결합하는 목적어 연어는 ‘seal’이다. 어떤 붙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떼어 내려고 할 때, 영어에서는 break로 쓸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뜯다’로 대응된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뜯다’로 나타나는 예문이다.

- (61) a. As I turned from the counter, I broke the seal and unrolled the parchment.
 b. 나는 카운터에서 등을 돌리고서,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쳤다.

‘뜯다’는 사전에서, ‘사람이 붙거나 닫히거나 봉해 있는 것을 떼거나 찢거나 헐어서 열’ 때 쓰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61)에서 ‘봉인’은 무언가가 붙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것을 break한다는 것은 잡아 뜯는 것으로 번역되어, ‘뜯다’로 대응된다. 한국어 사전의 정의처럼, ‘뜯다’는 어딘가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떼어내고 분리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4.1.11 찢다

break가 한국어에서 ‘찢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어 사전에서 ‘찢다’는 종이처럼 얇은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나눌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아래의 <표 13>는 ‘찢다’로 나타나는 목적어 연어이다.

<표 13> 한국어 대응표현 ‘찢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마음에 상처를 냄	heart

‘찢다’로 대응되는 경우, break의 목적어 연어는 사람의 마음이나 가슴을 나타내는 ‘heart’가 이며, ‘찢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파괴하여 상처를 준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62) a. It breaks my heart to see you like this.

b.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다.

(옥스포드 영한사전)

(62)에서, ‘heart’는 한국어에서 ‘마음’이나 ‘가슴’등으로 번역되고, 가장 흔히 대응되는 ‘break’는 ‘찢어지다’로 표현된다. 한국어 사전에서 ‘찢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우선 ‘사람이 한 덩어리의 물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다’와 ‘마음을 몹시 아프고 쓰리게 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영어에서 ‘break heart’에서 ‘heart’는 김명숙(1992)에 의하면, 영어에서는 ‘heart’를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개체로 인식하고, 부서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break로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영어에서는 ‘heart’가 단단한 개체로 인식되어, 부서지지만, 한국어에서 ‘찢는’것으로 비유된다고 하였다⁶²⁾. 한국어 화자에게는 ‘heart’를 ‘마음’이나 ‘가슴’으로 번역될 경우, 이를 쉽게 꺾 수 있는 딱딱하고 단단한 고체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이처럼, 연한 조직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부수다’나 ‘깨다’로 나타나지 않고, ‘찢어지다’로 대응된다.

4.1.12 갈다

break가 ‘갈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전에 ‘갈다’가 쓰일 때는 주로, 농사짓는 땅을 일구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다음의 표는 break가 ‘갈다’로 표현되는 의미와 목적어 연어이다.

<표 14> 한국어 대응표현 ‘갈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땅이나 지면을 뒤엎음	ground

62) 지인영(2009)은 Langacker(1991)를 인용하여, 단어는 경험하고 인지하는 언어 주체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즉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개념화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주로, ‘땅’을 나타내는 목적어 연어와 함께 쓰일 때, break는 ‘갈다’로 대응되어 쓰이고, ‘갈다’는 주로 평면적이 대상인 ‘땅’을 문질러 뒤집어 엮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을 통해 ‘갈다’로 대응되는 예를 살펴보자.

(63) a. He broke new ground.

b. 그는 새 땅을 갈았다. (이기동1995: 136)

(63)에서, ‘땅바닥’을 깬다는 것은 바닥에 균열을 내어 갈아엎는다는 의미이고, 한국어에서는 땅을 깰 때는 ‘깨다’ 보다는 ‘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파괴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땅바닥을 깨다’라는 한국어에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break ground’는 아래의 예문, (64)처럼 ‘착공하다’나 ‘기공하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64) a. A local real estate developer plans to break ground on a corner office building in the heart of downtown in the next sixty days.

b. 지방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향후 60일 이내에 도심 한복판에 고급 사무실 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YBM 올인을 영한사전)

(64)에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건물을 짓을 땅을 깨서, 공사를 시작해야한다. break가 ‘ground’와 함께 쓰일 경우 ‘갈다’는 표현으로 대응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주로 ‘착공하다’로 쓰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4.1.13 망가트리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망가트리다’로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전에서 ‘망가트리다’는 물건을 부수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괴되는 대상이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이 있다면, break는 ‘망가트리다’로 대응되어 표현된다. 다음은 망가트리다로 대응되는 될 때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이다.

<표 15> 한국어 대응표현 ‘망가트리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기기의 기능을 파손함	axle

‘망가트리다’로 대응되는 경우의 목적어 연어는 코퍼스에서 자동차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인 ‘axle’이 있다. 차축을 잡아주는 기계 장치의 기능을 파괴된다는 것은 망가져 고장이 났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65) a. ... and the boy thought they would soon have a flat tire or break an axle.
 b. ... 그리고 소년은 곧 타이어가 펑크 나든지 아니면, 차축이 맏가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망가트리다’는 만들어진 물건을 못 쓰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65)에서 ‘차축’은 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바퀴에 동력

을 전달하는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기계 내부의 고정된 위치에서 차가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장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은 고장 난 것을 의미하여, 한국어로는 ‘망가트리다’의 의미로 ‘차축’이 고장 났다는 표현될 수 있다. 이처럼, 기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장치는 일정한 배열과 순서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 데, 그 장치의 기능을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1.14 파산하다

다음은 ‘파산하다’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break가 재산이나 돈을 의미하는 목적어 연어와 쓰일 때는 재산이 부서져 산산이 흩어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파산하다’로 표현된다. 한국어 사전에서 ‘파산하다’는 사람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려 망하는 의미이다. 다음의 <표 16>은 ‘파산하다’로 대응될 때의 의미와 함께 쓰이는 목적어 연어이다.

<표 16> 한국어 대응표현 ‘파산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은행을 무너트림	bank

주로, ‘bank’와 결합할 때, ‘break’는 파산하다로 대응된다. 한국어 표현 ‘파산(破産)하다’에서 ‘파’의 한자 의미는 영어 break처럼 ‘깨트리다 무너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파산하다’는 은행을 무너트려 재산이나 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66) a. Buying a new dress at that price won't break the bank.
 b. 그런 값으로 새 드레스를 샀다고 하더라도 파산이 되는 건 아니
 라고. (YBM 올인을 영한사전)

(66)의 ‘은행’은 환유적인 표현으로 ‘재산’이나 현금에서 ‘화폐’ 등에 비유될 수 있다. 단단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마치 금고가 깨져 안에 있는 지폐가 흩어져 날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거나, ‘은행’을 무너뜨리는 의미로 한국어에서 ‘은행’과 함께 쓰인 break는 ‘파산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4.1.15 벗어나다

다음은 ‘벗어나다’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주로, 어딘가에 속박이나 구속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어 연어와 함께 쓰일 경우는 ‘벗어나다’로 대응된다. 한국어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는 정해진 범위를 이탈하여 빠져 나올 경우나 구속이나 얽아맨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 다음은 break가 ‘벗어나다’로 대응될 때의 의미와 함께 어울리는 목적어 연어를 <표 17>에 나타내었다.

<표 17> 한국어 대응표현 ‘벗어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① 속박당한 상황에서 빠져나옴	grip
② 정해진 범위를 이탈함	rank

‘벗어나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구속되어 움짱 달썻할 수 없는 상황을 빠져 나오거나, 어떤 한계나 정해진 공간적인 범위가 이탈하는 의미이다. 주로, 속박당한 ‘grip’, ‘stranglehold’와 대열, ‘rank’의 목적어 연어와 어울릴 때, ‘벗어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 속박된 상황에서 빠져나옴

(67) a. She was now trying a new tactic to break my grip.

b. 그녀는 이제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쓰려고 했다. (NE능률)

(67)에서 ‘grip’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break로 표현하는데, 남의 손아귀에 꼭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무언가에 얽매져 있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영어로는 break로 나타내지만, 한국어에서는 ‘벗어나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정해진 범위를 이탈함

(68) a. Last summer mobilephone behemoth Verizon Wireless broke ranks and signaled [...]

d. 지난 여름 이동통신 업계의 거물 베리존 와이어리스는 대열을 이탈해서(벗어나서)⁶³⁾ [...] 알렸다.

63) 원문에서는 ‘이탈해서’라고만 해석되어 있으나, 괄호의 내용은 설명을 위해 연구자가 추가하였음.

(YBM 올인을 영한사전)

(68)에서 ‘대열’을 깬다는 것은 일정하게 질서가 잡혀 있는 범위가 깨버리는 것이다. ‘대열’이 파괴된 것은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파괴’의 범주에서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을 살펴보았다. 영어 동사 break는 목적어 연어에 따라서, 한국어로 대응될 경우에 여러 가지의 파괴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에서 다루지 않은 대응 표현을 기타로 분류하고,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16 기타 대응표현

여기서는 break가 한국어에서 ‘파괴’의 의미로 대응되지 않는 다른 대응 표현들에 대해 살펴보자.

1) 고치다

(69) a. It takes a long time for bad behavior to become habitual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reak the bad habit.

b. 나쁜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YBM 올인을 영한사전)

(69)의 ‘습관’은 오랜 기간 형성된 행동 패턴이다. 이것을 break 한다는

것은 기존의 버릇이나 습관을 깨고 없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사 break가 ‘habit’과 결합할 경우는 ‘깨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주로, ‘고치다’나 ‘버리다’⁶⁴⁾로 번역되는 경향이 많다. 나쁜 습관을 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 단단하게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습관이 굳어져 단단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깨다’로 대응되지만, 주로 안 좋은 습관이 경우는 ‘고치다’나 ‘버리다’로 대응되고, 습관을 연속적인 활동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끊다’로 나타날 수 있다⁶⁶⁾.

2) 길들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break가 ‘길들이다’로 대응된다. 예문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70) a. I was in charge of breaking the horses. It wasn't like breaking wild mustangs, because our horses had been around us since they were foals.

b. 제 담당은 말의 길들이는 것이었다. 그 말들은 야생마가 아니고, 아기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말들이었다.

64) ‘버리다’는 때로는 ‘타파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habit’이 ‘구습’이나 ‘악습’으로 번역될 경우에 break는 ‘타파(打破)하다’로 표현될 수 있다.

65) 한국어 표현 중에 습관이나 버릇이 몸에 밴 경우를 ‘인’이라고 하며, ‘인이 박히다’라는 표현이 있다. ‘박히다’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66) 명사 목적어 연어가 어느 의미 유형에 해당되는가의 판단은 실증적 연구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미의 명확한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자의 직관에 따랐으며, 재분석의 과정을 통해 수정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70)에서, 어렵고 힘든 도전의 상대는 길들여야하는 야생의 동물, ‘말’이다. 길들여지지 않고 자란 말의 습성과 고집 등을 꺾어야 하는 것이다. break는 의지나 사기처럼 정신적인 힘을 이기고 극복하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야생으로 자란 말을 break한다는 것은 말이 가진 정신적 힘을 죽, 고집 등을 꺾는 것이며, 동물의 경우 ‘길들이다’로 주로 표현된다.

3) 풀다

동사 break가 ‘풀다’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71) a. According to coach Scott Barber, he'd recite Shakespeare in the locker room to break the tension before games.

b. 코치였던 스캇 바버에 따르면, 그는 경기에 앞서 긴장을 풀기 위해 라커 룸에서 셰익스피어 시를 암송하기도 했다고 한다.

(YBM 올인을 영한사전)

(71)에서 깨지는 대상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일이나 상태에서 마음을 줄이고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영어에서는 신경이 경직되어 뻣뻣한 것을 간주하여 단단한 물건을 깨듯이, break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 ‘긴장’은 줄이나 선이 팽팽하게 조여진 것을 인식하여 마치 감겨진 줄을 풀어 느슨하게 하듯이 ‘풀다’로 대응된다.

이상에서, ‘파괴’의 범주에서 파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break의 대응표현을 살펴보았다. ‘습관’이나, ‘동물’ 그리고, ‘긴장’과 같은 목적어 연어와 쓰일 때는, ‘고치다’, ‘길들이다’ 그리고, ‘풀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표현 이외에도, 목적어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break는 다른 많은 표현으로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4.2 ‘중지’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

‘중지’의 범주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나 움직임이 끊어지거나 지속되는 상태가 중간에 방해를 받거나 하여 멈춰진다. ‘중지’의 범주는 목적의 유형에 따라, ‘끊다’ 그리고 ‘중단하다’ 등의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나타난다. 먼저, ‘끊다’로 대응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4.2.1 끊다

한국어 동사 ‘끊다’는 무언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중간에, 멈추거나, 그만두는 것을 의미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사전에서, ‘끊다’는 첫째, 실,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 둘째, 관계를 이어지지 않게 하다. 세 번째,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추게 하다. 네 번째, 공급하던 것을 중단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표 18>는 break가 ‘끊다’로 대응할 때, break가 나타내는 의미와 목적어 연어들이다.

<표 18> 한국어 대응 표현 ‘끊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이어져 오던 상태를 끝냄	cycle, connection, addiction

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거나 반복되는 활동인 ‘cycle’, ‘connection’ 등의 목적어 연어와 쓰이는 break는 주로, ‘끊다’로 대응된다. ‘끊다’는 주로, 이어진 실처럼, 계속에서 이어져 왔던, 관계나 흐름이 중도에 멈춰 지속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끊다’로 나타나는 break에 대해 살펴보자.

(72) a. She broke the connection, slipped the phone back into her pocket, [...]

b. 그녀는 (전화) 연결을 끊고, 전화기를 가방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73) a. Adherents believe that humankind is reincarnated over and over again, but through the tenets of traditional Buddhism they can achieve enlightenment and break the cycle.

b. 신자들은 인간이 끝없이 윤회를 거듭하지만, 전통 불교의 교의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는다.
(NE능률)

(74) a. Addicts need help to break their addiction.

b. 중독자들은 중독을 끊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NE능률)

‘끊다’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져 오던 행위가 중간에 멈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72)에서 모듈과 배선사이를 이어주던 연결 관계를 break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이어진 것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어로 대응할 때는 ‘끊다’로 쓰인다. (73)에서 불교에서 ‘윤회’란 반복되는 운명을 말한다. 삶과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break’로 표현하고, 한국어에서는 ‘끊다’로 대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끊다’는 습관처럼 하던 일을 더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끊다’라고 하면 버릇처럼 자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문 (74)처럼, ‘중독’도 습관처럼 몸에 밴 나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break로 표현하는 데, 한국어로 대응될 경우에 ‘끊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break가 ‘끊다’로 대응될 때는, 한국어에서는 그 대상은 마치 ‘선’이나 ‘줄’처럼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 될 경우는 ‘끊다’로 해석된다. ‘중독’이나, ‘사슬’, ‘고리’와 같은 어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것을 break한다는 것은 끊고 중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끊다’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4.2.2 중단하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중단하다’를 “사람이 일이나 언행 따위를 도중에 멈추거나 그만두다”로 정의하고 있다. ‘중단하다’는 계속해서 해 오던 행위를 멈출 때 쓰는 표현이다. break가 ‘중단하다’로 대응될 때, 나타내는 의미와 목적어 연어는 다음과 같다.

<표 19> 한국어 대응 표현 ‘중단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연속적인 활동을 멈춤	filibuster

‘중단하다’의 목적어 연어는 주로 지속해 오던 활동들이다. 회의를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filibuster’ 등의 목적어 연어와 결합할 때, 중지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 때, break는 ‘중단하다’는 계속해서 해오던 행위를 멈추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을 통해 ‘중단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 break에 대해 살펴보자.

(75) a. To break a filibuster, Democrats would need 60 votes.

b.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60표가 필요하다.

(76) a. We broke our journey in Oxford⁶⁷⁾.

b. 우리는 옥스퍼드에서 길(여행)을 멈추고(중단하고) 쉬었다.

(옥스포드 영한사전)

위의 예문 (75)을 보면, 계속 연설을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을 영어로는 break로 표현하였고, 한국어에서는 ‘중단하다’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76)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활동인 ‘여행’을 깬다는 것은 그러한 움직임을 멈춘다는 의미이므로, 한국어에서는 ‘멈추다’ 또는 ‘중단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67) 코퍼스에서 ‘activity’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는 ‘filibuster’와 ‘suction’으로 2개가 나타났다. ‘suction’의 예문보다는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 나온 비슷한 예문으로 대신 설명한다.

이상에서, ‘중지’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동사 break는 한국어로 ‘끊다’, 그리고 ‘중단하다’로 대응된다. 중단이나 방해하는 의미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 오던 움직임인 경우는 ‘중단하다’로 표현되었다. 또한, ‘disconnect’의 의미 유형에 속하는 break는 이어져 오던 시간적으로 이어져 오던 흐름이나 상태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여, ‘끊다’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어김’의 한국어 대응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4.3 ‘어김’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

‘어김’의 범주는 한국어에서 ‘어기다’ 그리고 ‘위반하다’등의 표현으로 대응된다. ‘어기다’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

4.3.1 어기다

한국어에서 ‘어기다’는 약속이나 법 그리고 규칙 등을 따르지 않고 저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break가 ‘어기다’로 대응될 때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어떠한 목적어 연어와 쓰이는지 <표 20>에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표 20> 한국어 대응표현 ‘어기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함	rule, commandment, protocol

동사의 의미 유형에서 ‘violate’와 ‘disobey’에 속하는 대부분의 목적어 연어와 함께 사용된 break는 ‘어기다’로 대응된다. 약속과 법을 포함하여 정해져있는 규정과 규칙, 그리고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무시할 때, break는 ‘어기다’로 대응하고, 지켜야할 규칙에 따르지 않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의미이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한국어 대응표현 ‘어기다’로 해석되는 예문들이다.

(77) a. The girl disobeyed her mother and broke the rule.

b. 그 여자아이는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규칙을 어겼다.

(78) a. Former CIA Director John Brennan testified on Tuesday that the president broke protocol in doing this.

b. 전 CIA 국장, John Brennan은 화요일에 이것은 대통령이 의례를 어겼다고 증언하였다.

(77)에서 ‘규칙’을 break한다는 것은 정해진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며 규칙을 break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78)에서, ‘의례’는 일정한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예식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목적에 의해 정해진 절차나 의식은 신자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야하고 주로 ‘어기다’로 표현된다. ‘어기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저버린다는 의미이며, 약속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어기다’가 가장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다.

4.3.2 위반하다

‘위반하다’는 법이나 규칙에 강제성이 많을 때 대응되는 표현이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위반하다’를 법률이나 명령, 그리고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길 때 쓰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동사 break한국어 대응 표현 ‘위반하다’로 나타나는 목적어 연어를 <표 31>에서 살펴보자.

<표 21> 한국어 대응표현 ‘위반하다’의 의미와 목적어 연어

의미	목적어 연어
강제력이 있는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	law, embargo, curfew

‘위반하다’로 대응되는 경우, break의 목적어 연어는 주로 공적인 면이 강한 ‘법’이나 ‘명령’과 관련 있는 목적어 연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위반하다’는 법률이나 명령처럼 강제성이 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쓴다. 다음은 동사 break가 한국어 대응표현 ‘위반하다’로 해석되는 예문이다.

- (79) a. The German newspaper Taz also reported that the Chinese firm Huawei Technologies broke the embargo in 2000 and 2001 by supplying hi-tech fiberglass parts ...
- b. 독일 타스 신문은 중국 기업 Hwewai가 2000년과 2001년에 첨단 유리 섬유 부분을 공급하여 통상금지령을 위반했다고 보도하였다.

공적인 강한 (79)의 ‘통상금지령’같은 단어와 함께 쓰인 break는 주로 ‘위

반하다'로 표현된다. 한국어 사전에서 '위반'의 의미는 주로, '법률이나 명령,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기다'와 '위반하다'로 번역되는데, 주로, 어떤 나라간의 공식적인 조약이나, 법규 등의 어휘와 쓰일 때는, '위반하다'로 대응될 수 있다⁶⁸⁾.

'어김'의 의미 범주에서 break가 가장 자주 대응되는 표현은 '어기다'이며, 공적이고, 명령의 의미가 강하고, 공적인 경우는 '위반하다'로 대응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영어 동사 break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의미 영역에서 목적어 연어와 쓰인, break의 한국어 대응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깨다'로 대응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괴'의 범주는 '깨다'를 비롯하여, '부수다', '뚫다', '타개하다', '터트리다', '부러트리다', '꺾다', '쪼개다' 그리고 '뜯다' 등, 대상의 성질과 모양에 따라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되었다. '중지'의 범주에서는 '끊다' 그리고, '중단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김'에서는 '어기다', '위반하다'로 대응되었다. 이렇게 동사 break는 목적어 연어에 따른 한국어 대응 표현이 달라지며, 특히, 아주 다양한 파괴의 의미를 지닌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8) '위반하다'는 'promise'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의 예문처럼, 주로 함께 쓰이는 어휘는 '법'과 '규칙'과 관련된 어휘가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 a. 그녀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네이버국어사전)
 - b. 위 기업은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법과 노동자 고용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탄원합니다.
 - c. 요즘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 d.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b-d: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 a처럼, 목적어 연어가 'promise'에서 속하는 '계약'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b의 '노동법'과 같이 '법'과 관련된 어휘와 함께 사용되고, c나 d의 '교통신호'와 '규칙'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로 '위반하다'가 쓰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코퍼스에서 추출한 명사 목적어 연어를 분석하여 영어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을 나누고, 분류된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break가 연어를 이루는 목적어와 함께 쓰일 때, 한국어로 어떻게 대응되어 나타나는지 한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코퍼스에서 break와 연어를 이루는 목적어를 통해서 분류된 break의 의미 범주에 따라, 각 범주별 목적어 연어 수에 따른 빈도는, 파괴>중지>어긋의 순서로 나타났다. 범주 중에서 ‘파괴’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break는 파괴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의 의미 유형은, ‘파괴’의 범주에서는 ‘disintegrate’와 ‘discard’의 의미 유형을 가지고, ‘중지’의 범주는 ‘disconnect’와 ‘stop’으로 분류되며, ‘어긋’은 ‘violate’와 ‘disobey’의 의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사의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break가 각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목적어 연어와 함께 쓰일 때, 어떠한 한국어로 표현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의미 유형별 영어 동사 break의 한국어 번역 양상은 명사 목적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파괴’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대응 표현은 목적어 연어에 따라, ‘깨다’, ‘부수다’, ‘뚫다’, ‘타개하다’, ‘터트리다’, ‘부러트리다’, ‘꺾다’와 ‘쪼개다’, 그리고 ‘뜯다’ 등으로 여러 가지 한국어 표현으로 주로 대응되었다.

주로 ‘깨다’로 대응되어 쓰이는 경우는 목적어 연어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단단한 물체를 파괴할 때, 두 번째는 힘들

거나, 나쁜 일을 극복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셋째, 기존에 이미 이루어져 있던 사고나 행동 방식을 나타내는 연어와 결합하여 깨서 없애버리는 의미를 나타낼 때, 네 번째는 지속되어 온 상태나 분위기를 방해하는 의미일 때, ‘깨다’로 대응되었고, 다섯 번째는 약속이나 계약 등의 무효화해서 없었던 일로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깨다’로 대응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부수다’는 대상이 파괴되어 여러 개의 조각이 생기는 경우나, 일부러 형체를 파괴하여 못쓰게 만들 때 대응될 수 있는 의미이다. ‘뚫다’는 가로막혀져 있는 것을 통과하여 지나 갈 때, 주로 쓰이며, ‘타개하다’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쓰는 의미일 때 대응되는 표현이다. ‘파기하다’로 대응될 때는, 계약이나 약속이 문서로 된 증거가 있을 때이며, ‘터트리다’는 주로, 대상이 둥근 형태로 부풀어져 있는 것이나, 속에 있던 내용물을 갑자기 드러내는 경우에 대응되어 나타나는 표현이다. ‘부러트리다’는 사람의 뼈가 부딪쳐 다치는 경우나, 길게 생긴 물건을 분리할 때 쓰인다. ‘꺾다’는 길고 얇은 대상이 구부러져 끊어질 때 대응될 수 있다. ‘쪼개다’는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다. ‘뜯다’는 무언가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 분리할 때 나타나는 대응 표현이다. ‘찢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대응해서 쓸 수 있다. ‘갈다’의 대상은 주로 지면이나 땅을 표현을 깨트릴 때 사용된다. ‘망가트리다’는 기기나 장치의 기능을 손상시킬 때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이며, ‘파산하다’는 은행을 무너트린 의미를 나타낼 때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벗어나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엮매져 있는 상황이나 정해진 범위를 넘어설 때 쓰인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동사 break로 목적이 되는 대상을 분리하거나, 분해하여 파괴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영어 동사 break가 한국어로 대응되는 경우는 목적어 연어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아주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지’의 범주는 ‘끊다’ 그리고 ‘중단하다’ 등으로 대응되어 표현되었다. 반복하여 이어져 오는 흐름이나 상태가 중단되어 종결되는 경우에는 ‘끊다’로 해석되었고, 지속적으로 행해오던 행위나 활동이 멈추는 경우는 ‘중지하다’로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어김’의 범주에 속하는 break는 ‘어기다’, ‘위반하다’ 등의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되어 나타났다. ‘어기다’로 대응되는 경우는 약속이나, 법률 그리고 규정 등 지켜야할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저버리고 무시할 때 대응되며, ‘위반하다’는 법이나 명령과 같이 강제성을 가진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때 쓰였다.

지금까지 영어 동사 break의 의미 유형과 목적어 연어에 따른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사 break의 한국어 대응표현 양상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몇 개의 대응 표현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아주 다양한 한국어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나의 형태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 동사의 의미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떠한 한국어로 해석되는지를 살펴본 것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다의성을 가진 영어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하지만, 실증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자료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대조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동사의 의미 유형 분류와 한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결과의 많은 부분이 연구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존하고 의미 유형에 대한 기준의 명확성에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영한 대조 작업을 통한 대조 연구에서는 비교 자료 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터넷에서 발췌한 자료와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어 해석도 문맥에 따라 여러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의미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EFL 학습들의 어휘 학습을 위해, 다의어 동사의 의미를

유형 별로 분류하고 한국어 대응 양상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수월하게 외국어 어휘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어 동사 break는 다양한 의미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의미 유형에 따라 아주 많은 한국어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어 어휘학습의 위한 사전 편찬 시에, 어휘를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표시하면, 학습자들이 무조건 암기식 어휘습득을 지양하고, 영어 어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영, 또는 영한 번역을 할 경우, 하나의 표현으로만 대응하여 어휘로 바꾸기 보다는 문맥과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는 무수히 많은 어휘가 있으며, break외에도 많은 다의어 어휘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언어의 어휘를 학습하고 습득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어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코퍼스 언어 자료를 가지고, 의미 범주 분석과 의미 유형 분류 연구를 통해서, 대응표현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본 연구는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로도 확대되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어휘학습에 도움이 되고자하며, 이 연구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권혁승. 2008. 코퍼스 언어학의 실제 및 응용. 「응용언어학」, 24(3), 1-30.
- 김명숙. 1992. 「영향동사의 의미확대 현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2. 「영어 *Get*-구문에서 동사 *Get*의 의미확장에 관한 인지 의미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일. 2017a. 다의어 동사 ‘open’과 ‘열다’에 대한 어휘유형론적 접근. 「현대문법연구」, 91, 167-187.
- 김은일. 2017b. He Won his Wife in a Card Game: WIN의 의미지도. 「새한영어영문학」, 59(4), 173-196.
- 김준기. 2000. 「한국어 타동사 유의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나익주. 2012. 다의어 ‘walk’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인지」, 19(1), 55-79.
- 박영태. 2014. 영어 동사 make의 의미 확장에 관한 인지적 분석. 「언어학 연구」, 30, 75-98.
- 박진호. 2012. 의미 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459-519.
- 박진호. 2015. 언어유형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제시하는 것들. 「일어일 문학연구」, 94(1), 3-27.
- 송점중. 2010. 「다의어 동사 run의 의미확대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지영. 2010. finish와 end의 의미와 연어 비교연구. 「현대문법연구」, 62, 227-252.
- 이기동. 1995. 「영어 동사의 의미」 (상). 서울. 한국문화사.
- 이지은. 2013. 언어유형론의 새로운 접근: 의미지도모형(Semantic Map Model)을 통한 범언어적 연구 上. 「중국어문학논집」, 79, 235-255.
- 이창희. 1998. 영어 다의어 동사의 인지론적 고찰. 「언어과학연구」, 15, 257-288.
- 임지룡. 2009. 다의어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8, 193-226.
- 정규식. 1995. 「이동동사 Run, Walk와 Creep의 의미확대 현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란. 2019. 동사 ‘break’와 ‘깨다’의 어휘 의미지도. 「인문사회과학연구」, 20(3호), 285-310.
- 지인영. 2009. 영어와 한국어의 Heart 관련 표현. 「영어학」, 9(4), 737-759.
- Bendix, E. H. 1966. Componential Analysis of General Vocabulary :The Semantic Structure of a Set of Verbs in English, Hindi, and Japa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32(2).
- Bennett, D. 1973. A Stratificational View of Polysemy. In Makkai, A & Lockwood, D, G (eds). *Readings in Stratificational linguistics*, 297-306.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Benson, M., Benson, E. & Ilson, R. 1997a.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enson, M., E. Benson, & R. Ilson, 1997b.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Philadelphia, M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ruse, D. A.(2000). Lexical 'facets' : between monosemy and polysemy. In Beckmann, S., P. P. König, & T. Wolf (eds). *Sprachspiel und Bedeutung: Festschrift für Franz Hundsnurscher zum 60 Geburtstag*, 25-36.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François, A.(2008). Semantic Maps and the Typology of Colexification. In M. Vanhove (ed). *From polysemy to Semantic Change*, 163-215.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P. Norvig. 1987. Taking A Study in Lexical Network Theory.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2, 195 - 206.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Theoretical Prerequisites*, 369-387.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Descriptive Applica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2002.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 Ney, J, W. 1990. Polysemy and Syntactic Variability in the Surface Verb ‘Break’. *LACUS forum*, 264–278.
- Rosch, E.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 Rosch, and B.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27–48. Hillsdale, Mich.: Lawrence Erlbaum,
- Ruhl, C. 1975. Primary Verbs. *LACUS Forum*, 436 – 45.
- Mayer, T., L. Johann–Mattis, T. Anselm, & U. Matthias. 2014. An Interactive Visualization of Cross linguistic Colexification Patterns. *VisLR Workshop – Visualization as added value in the development, use and evaluation of LRs*. LREC 2014, Reykjavik.
-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남성우 역(1987), 의미론: 의미과학입문, 탑출판사.

참고자료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
- 꼬꼬마 세종 말뭉치 활용시스템 (<http://kkma.snu.ac.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s://endic.naver.com>)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

Collins Online Dictionary (<https://www.collinsdictionary.com>)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https://www.ldoceonline.com>)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 Korean Dictionary

(<https://endic.naver.com>)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